

2014

Coffee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대학생미디어기자단



커피, 커피를 따마이다.

2014

꽃집강릉

HEALTH & BEAUTY HEALING ROAD 2014
in Gangneung

해비채 힐링로드

2014. 10. 3 FRI - 5 SUN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초당 소나무 숲 힐링로드

제6회 강릉커피축제와 함께합니다.

| 커피축제장과 박람회장 연결 셔틀버스 운영

헬스건강 : 건강측정, 의료기기, 바이오, 힐링푸드, 디톡스상품 **뷰티산업** : 에스테틱, 뷰티기기, 뷰티마켓, 피부측정, 아로마
웨딩&플라워 : 웨딩업체, 웨딩포토, 메이크업, 플라워, 웨딩투어 **체험이벤트** : 뷰티경연대회, 교류행사, 힐링특강, 힐링로드투어, 경품행사

사전접수(세미나, 이벤트) : www.restinkorea.com 세미나 홈페이지 참조

CONTENTS



2014. 09

발행 _ 강릉문화재단
후원 _ 강원도, 강릉시
진행 _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대학생미디어기자단

연락처 _ 강릉문화재단 커피축제사무국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4 강릉문화예술관 내

Tel _ 033.647.6800
Fax _ 033.647.6801
Homepage _ www.coffeefestival.net

Twitter _ @gcoffeefestival
Facebook _ gcoffeefestival

디자인 _ 이충작업실
인쇄 _ 아이앤디자인

©강릉문화재단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2014



본 책자는 친환경인쇄용지인종과 FSC인증용지를 사용한
 지류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표지 : 한솔제지 양코르 210g / 내지 : 한솔제지 양코르 130g

스페셜 칼럼

- 1. 강릉커피축제 총감독 이종덕 2
- 2. 칼럼니스트 김태훈 3
- 3. 배우 박정아 4
- 4. 배우 박해진 5

우리 카페는 [] 를 민다!

- Coffee Cupper(커피커퍼) / Design O(디자인오) 6
- 교동899 / florentia(플로렌티아) 7
- 모모 / 하슬라커피 8
- 안녕고양이 / 제일다방 9

커피응급처치

- 1. 커피를 생각한다 10
- 2. 커피가 마시고 싶은 새벽 3시 12
- 3. 메뉴판엔... 14
- 4. 미대자판기 16

커피와 사람

- 1. 미술관에선 어떤 커피를 마실까? : 강릉시립미술관 최지순 큐레이터 18
- 2. 365일 커피향의 바다를 본다 : 해양다큐멘터리 윤혁순 감독 20

특별한 만남

- 만남 1. 소곤소곤 연애 : 두근두근 커플 데이트!! 22
- 만남 2. 다다다다 청춘 : 위대한 컵의 향료를 따라서 24
- 만남 3. 재잘재잘 웃음 : 소복소복 쌓이는 빙수처럼 우정도 소복소복 26

GLOBAL REPORT

- 몽골인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우유차" 28
- 낮선풍경 30

My Way in Coffee & Cafe

- 학교가는 길 :** 1. 커피의 쓴맛이 익숙해질 무렵 32
- 2. 커피, 카피, 카페. 33
- 집으로가는 길 :** 3. 안목을 보는 안목 34
- 4. 십년 뒤에도 다시 가보고 싶'Da' 36
- 5. 하루의 법칙 37

나는 답을 얻으러 안목에 왔다.

- 소울넘버로 나만의 커피, 나의 성격을 알아보자 40

명주동 여신

- 커피잔 아카이브 46

현장 INTERVIEW

- 현장 1. 오아시스같은 공간 Crack (크랙) 48
- 현장 2. 미국인 잭커피가 운영하는 교동택지 SO ZAC's (쏘잭스) 50
- 현장 3. 꽃향기 가득한 카페, MOCHA TREE(모카트리) 52
- 현장 4. java(자바)의 Alba(알바) 54

커피의 사회적 참여 가능성

-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대학생미디어기자단 58

후기

- 60

By 강릉커피축제 총감독 이종덕

커피 한 모금 낭만 한 스푼



알프스 도데의 ‘별’이 떠오릅니다. 별이 아름다운 이유는 말 그대로 별천지이기 때문이지요. 다가가 수 없는 거리. 어두운 하늘에 쏟아지는 한줄기 빛. 거기에 사람들은 반하는 거랍니다.

그 별빛만큼 아름답게 빛나는 밤바다 오징어배의 등불. 철썩이는 파도 소리. 밤낮없이 시시각각 변하는 얼굴. 끼룩거리는 갈매기. 거기에 커피 한 모금으로 잠깐이지만 부러보는 호사로운 여유. 풍경으로 치유되는 강릉 커피입니다.

강릉 커피? 몇 년 전만해도 고개를 가우뚱하는 분들이 많았답니다. 하지만 천년도 더 오래전부터 신라 화랑들이 강릉에서 차를 달여 마셨다는 기록. 국내 유명 브랜드 소주 공장이 있다는 사실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천이나 영진, 주문진이나 안목 바닷가 모래사장에 걸터앉아 커피 한 잔 들이키고 나면 머리 개운해지고 몸까지 가벼워진다는 얘기 종종 듣습니다. 강릉의 산과 바다, 호수가 던져주는 오래된 치유의 힘이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강릉에는 무림 고수가 많습니다. 요즘 강릉서는 커피자랑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최초의 커피명장들이 강릉에서 뿌리내린 것이 밑알이었습니다. 이젠 집집마다 콩을 볶거나, 커피를 하거나, 커피순례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스스로 평론가이자 바리스타, 혹은 지독한 커피광인 분들이 많다는 얘깁니다.

커피가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약속을 ‘커피 한 잔 하자’고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커피’라는 두 글자 안에는 ‘약속, 만남, 일, 열정, 사랑, 이별, 고독, 해후, 치유’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사연이 담깁니다. 커피의 처음이 수도사들의 약으로 쓰였다는 것이, 프랑스의 화려한 문학과 예술의 꽃을 피우게 한 것이 모두 그런 사연들을 차곡차곡 쌓아왔기 때문이라지요.

이제 강릉은 커피명인, 커피농장, 커피공장, 커피박물관 등 별천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월에 강릉 커피축제를 하는 것도 계절의 절정에 ‘커피 한 모금 낭만 한 스푼’ 권하는 것이지요. 뜨겁거나 혹은 차갑거나, 버겁거나 혹은 무료하거나 어느 쪽이어도 동쪽바다 강릉에 와 보세요. 그리하여 커피향의 마법에 홀려 보세요.

‘저 많은 별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는 별이 길을 잃고 헤매다
내 어깨에 내려앉아 잠시 잠들어 있다고.’

그게 당신입니다.

By 칼럼니스트 김태훈



커피의 도시에서 자신만의 취향을 완성해보면 어떨까.

스쿠버다이빙을 배운 2001년 이후 바다는 내게 늘 삶의 재충전을 위한 공간이었다. 특히 동해의 거친 물살은 내게 삶의 의지를 가르쳐 줬다. 적도의 에메랄드 빛 판타지는 없지만 동해 바다에는 남성다운 시원함이 있다. 수심 30미터의 오싹한 심도와 3미터도 채 나오지 않는 흐릿한 시야, 거기에 더해진 조류와 파도의 격렬한 변주가 주는 시원함.

매년 여름이 멀리서 보이기 시작하면 올 여름에는 장고 라인하르트의 <La Mer>를 들으며 동해의 물속 어딘가에서 물고기 흉내를 내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곤 한다. 바쁜 일상에 현실이 되긴 쉽진 않은 상상이지만, 그래도 내게 바다는 늘 복잡한 머리를 털어내고 재충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바다가 끊임 없이 공급해줬다.

올해의 바다는 분명 예년과는 달랐다. 지난 봄 진도 앞바다에서 시작된 바다의 아픔은 휴가철 거센 비와 태풍으로 이어졌다. 바다의 계절은 여름이지만 올해는 유난히 바다를 찾은 휴가객이 적었다고 한다. 그렇게 또 여름이 지나갔다.

그렇다고 올해 바다가 우리에게 줄 선물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10월의 부산 해운대 바다에선 영화의 축제가 열리고 강릉의 10월 바다에선 커피 축제가 열린다. 벌써 6번째 강릉 커피축제가 열린다. 언젠가부터 강릉은 바다 향과 커피 향이 어우러진 도시가 됐고, 특히 축제기간인 10월의 강릉은 커피 향이 아름다운 향연을 펼친다.

어느새 커피는 우리의 곁에 매우 깊이 파고들었다. 유행처럼 내지는 습관처럼 커피를 마시는 수준을 뛰어넘어 분명한 자기만의 커피 취향을 바탕으로 더 깊은 커피의 세계를 파고드는 이들도 주위에 적지 않다.

손 코넬리부터 다니엘 크레이그까지, 시대의 취향에 따라 007 영화의 주인공들은 교체돼 왔지만 “보드카 마티니, 섞지 말고 흔들어서”라는 유명한 대사는 단 한 번도 스크린에서 사라진 적이 없다. 제임스 본드를 맡은 배우는 교체됐어도 본드의 취향은 변하지 않은 것이다. 올 가을 강릉을 찾아 다양한 커피가 넘쳐나는 커피의 도시에서 자신만의 커피 취향을 완성해보면 어떨까.

제 6회 강릉커피축제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홍보 소식을 직접 만드느라 고생한 강릉문화재단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의 대학생 기자단에게도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By 배우 박정아

제 6회 강릉커피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배우 박정아예요.

강릉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지요. 대관령을 넘어가면서 느끼는 숲 향기, 동해안의 푸른 바다가 선사하는 바다 향, 그리고 너무나 매혹적인 커피 향이 어우러진 곳이니깐요. 언젠가부터 강릉에서 커피향이 짙어지기 시작해 강릉커피축제가 시작되더니 벌써 올해가 여섯 번째네요.

저는 얼마 전에 유럽에서 귀국했어요. JTBC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예능 프로그램 <미친(美親) 유럽여행-예뻐질 지도> 촬영을 하고 돌아왔거든요. 물론 유럽은 정말 여행하기 좋은 곳이지만 저는 강릉처럼 국내에도 여행하기 좋은 곳이 많다는 게 정말 행복해요. 유럽에서 맛 본 커피도 좋았지만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강릉에서 맛보는 커피는 더욱 매혹적이겠지요?

이번 강릉커피축제를 홍보하는 소식지를 강릉의 대학생들이 직접 만든다는 얘길 듣고 더욱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강릉문화재단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의 대학생들이 직접 글도 쓰고 사진도 찍고 열심히 홍보 소식지를 만든다고 들었는데 뜻 깊은 일에 동참한 대학생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강릉에는 아름다운 산과 바다, 그리고 커피도 있지만 지역 축제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대학생들의 젊음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정말 기쁩니다.

이처럼 좋은 축제가 열린다는게 커피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해진입니다. 제 6회 강릉커피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름다운 바다와 산, 그리고 커피로 유명한 강릉에서 매년 이처럼 좋은 축제가 열린다는게 커피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저 역시 당연히 커피를 정말 좋아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촬영하다 보면 가끔 동료 배우와 스태프들을 위해 밥차를 쓰는 일이 생기는 데 그럴 때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커피를 함께 대접합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커피 향을 나누며 잠깐의 여유를 즐기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이처럼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 커피 CF 모델까지 됐고요.

제가 마셔 본 최악의 커피는 박훈이 타준 커피였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여태까지 먹어본 커피 중 정말 최악이군요”라고 말했겠습니까.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드라마 <닥터 이방인>의 한 장면으로 박훈 역할의 종석이 가 한재준역으로 분한 저에게 커피를 타준 장면이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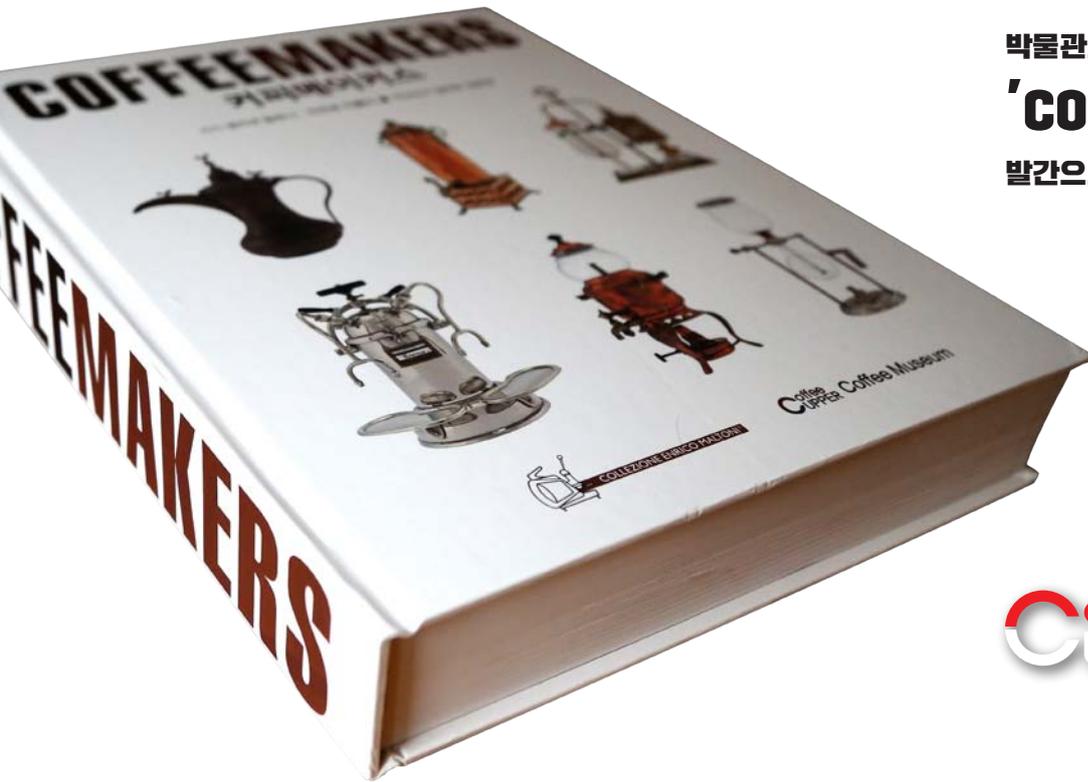
이번에 강릉을 찾아 박훈이 타준 커피와는 정반대인 정말 맛 좋은 커피를 마시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제 6회 강릉커피축제 기간에 새 드라마가 시작돼 정신없이 바쁠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활동으로 바쁘게 지냈는데 올해는 한국에서 연이어 드라마를 촬영하게 돼 정말 행복합니다. <별에서 온 그대>에 이어 <닥터 이방인>이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제 6회 강릉커피축제 기간인 10월 4일에 시작하는 OCN 드라마 <나쁜 녀석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명칭해 보일 정도로 착하기만 한 이휘경, 냉철하지만 마음은 따뜻했던 한재준에 이어 이번에는 사이코패스인 이정문 역할을 맡았어요. IQ 160의 최연소 멘사 회원이자 최연소 철학과 수학 박사 타이틀을 가진 천재랍니다. 다만 사이코패스 기질이 숨어있는 최연소 연쇄 살인범이기도 하죠.

다시 한 번 제 6회 강릉커피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나쁜 녀석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우리 카페는 를 민다!



박물관과 커피나무로 이미 유명하지만
'coffeemakers'의
발간으로 커피 유물의 역사를 다시 쓴다.



커피향을
'디자인'하여
가구에
입힌다.

design O

미술관 옆 '갤러리'



gallery cafe 교동 899

'음악'이 없는
커피를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florentia

우리 카페는 를 민다!



'책'을 읽을 때면
누구나 모모가 된다.

Book Cafe
모모



'다양한' 커피 원두,
커피 기구를
만나고 싶다면

하 슬 라 커피

5마리 '고양이'의 야지트!



안녕, 고양이



'시간'을 고스란히 간직한
공간 자체가 새로운 경험



제 일 다 방

딱딱한 일상을
덜어내는 커피,

커피를 생각한다.

토요일 오후. 보리차를 끓이는 커다란 주전자에 불을 얇게 담아 가스 불을 댕긴다. 치지직. 주전자가 소리를 낸다. 흔들리는 가스 불을 멍하니 노려본다. 물이 끓는다. 내 마음도 뜨겁게 끓고 있다. 나는 아무렇게나 커피를 내린다. 대충 머그잔에 드리퍼를 올리고 물을 붓는다. 물은 너무 뜨겁고, 원두가루는 오래된 것 같다. 지금은 커피 맛보다 커피 한 잔이 필요하다. 차가운 침묵 사이로 남편에게 커피 한 잔을 내민다. 화해의 테이블로 나오라는 메시지다.

나는 주말부부다. 고백하건대 카페형 남자와 로맨틱하고 달달하게 살고 싶었는데 슈퍼마켓형으로 살고 있다. 로맨틱은 짧았고 우리가 생활형으로 함께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었다.

이상하게도 갈수록 나의 기운은 점점 세져 무거운 장바구니는 마치 과자봉지를 손에 쥐듯 번쩍번쩍 들어 올리며, 걸음은 또 얼마나 짹짹 빠라졌는지

골목길과 시장 길을 누비며 날마다 제 영역을 넓혀 가는 잡초처럼 산다. 초여름 바람에 자그마한 노란 얼굴을 내밀고 솜털처럼 간지러울 듯 한 하얀 꽃잎을 피운 수줍은 달갈꽃(개망초) 같은 여인이 되고 싶었는데 말이다.

커피 한 잔의 여유라는 말은 사실 몇 년간 잊고 살았다. 커피 한 잔의 호사라 생각하며 참 딱딱하게 삶이 살아지고 있었다. 사람들에게는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자고 응원을 날리면서 실은 늘 시간에 끌려 다니는 삶이었다. 지쳐가고 있었다. 남편은 언제나 금요일 밤에 강릉에 도착하면 “커피 한 잔 하러 가자” 했지만 나는 언제나 “내일 먹자” 하고 시간을 벌어 두었다. 그는 나와 시간을 함께 하고 싶어 했지만 나는 영화를 보러 가고 싶었다. 현실이 아닌 다른 시간 속에 나를 여행 보내고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렇게 한밤의 커피 외출은 늘 성사되지 못했다.



“삶은 누추하기도 하지만 요묘한 것이기도 하여
살다 보면 아주 하찮은 것에서 큰 기쁨
이 세상에 태어나길 참 잘했다
싶은 순간과 만나질 때도 있는 것이다.”

—박완서 선생님의 수필집에서
메모한 글을 떠올린다.



올여름 해마다 일주일 정도 떠난 우리 집 자두가 고작 이틀밖에 팔 수 없을 만큼 적은 양이 달렸다. 매년 달고 신맛을 내던 자두가 주렁주렁 달리던 나무였는데 무슨 연유인가 했더니 자두나무가 너무 늙어 그렇다는 것이다. 나무가 늙는다는 말은 내게 너무 낯선 사실이었다. 어리석게도 너무나 당연한 사실 앞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솟구쳤다. 나사처럼 조여진 나의 일상이 닳고 닳아 소모되고 있다 생각했다. 하지만 일상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매일 매일의 시간들이 모여 지금의 내가 되고, 그 순간의 삶들이 모여 나의 미래가 되는 것이었다. 나무가 오랜 시간을 지나 다시 흙으로 돌아가 새 생명을 얻듯이 우리는 거스룰 수 없는 시간 앞에 모두 같은 무게를 안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삶은 누추하기도 하지만 요묘한 것이기도 하여 살다 보면 아주 하찮은 것에서 큰 기쁨, 이 세상에 태어나길 참 잘했다 싶은 순간과 만나질 때도 있는 것이다.” 박완서 선생님의 수필집에서 메모한 글을 떠올린다. 나는 내게 주어진 소중한 하루에 서둘러 다시 마음을 열고 온몸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즐기기로 했다. 내 마음에 팍팍한 일상을 털어내고, 옛 추억을 불러내 여유 공간을 내주고 그와 함께 뚜벅뚜벅 걸어간다.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을 바꾸니 마음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

일요일 밤. 개그콘서트가 한창인 시간에 남편은 다시 골목길을 나선다. 매주 반복되는 안녕의 시간 우리는 서로의 등을 토닥인다. 카페 남문동. 카드 사용 문자가 날아든다. 그도 마음을 달래는 중인가 보다. 그는 그만의 자동차 카페에 아메리카노 향기를 담아 일요일 밤을 달려 이천으로 돌아간다. 음악을 크게 올리고 길을 달리고 있겠지. 우리의 주말이 그렇게 저문다.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추억 하며 서로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간다.

아침 출근길이다. 노암동 창포다리를 가로질러 남문동 가구 골목길을 지나 아직 문을 열지 않은 <명주사랑채>를 지난다. 작은 골목 안의 <봉봉방앗간> 카페도 흘깃 쳐다본다. 대로변으로 나오자 남문동 카페도 아침 햇살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우체국 쪽으로 발길을 재촉한다. 200번 버스에 오른다. 운 좋은 날이다. 버스 기사 아저씨의 라디오 취향이 나와 같다.

반가운 음악 소리에 커피를 추출하듯 향기 나는 글이 쓰고 싶어진다. 그래서 창가의 풍경이 스치듯 스쳐가는 문장 두어 줄을 잊을새라 열린 휴대 전화에 메모한다. 이내 교동 명륜고등학교 이명고개로 접어드는 버스 안에서 북카페 <모모>를 떠올린다. 버스가 이곳을 지날때면 “5월 1일 노동절, 북카페 모모는 하루 쉽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 받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고 글귀를 적어두었던 주인장의 얼굴이 반갑게 떠오른다. 다음은 <커피 내리는 버스정류장> 카페다. 이렇게 출근길에는 내가 가끔 들르는 카페들을 모두 만난다.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카페를 바쁘게 지나치며 나는 그 공간을 가꾸고 지키는 사람들을 생각한다.

커피포트에 물을 팔팔 끓인다. 맥심 커피를 머그잔에 획 붓고 열음을 가득 채운다. 달달하다. 나의 여름 아침 식사다. 머그잔에 한가득 채워 책상 원편에 올려두고 컴퓨터 앞에 앉는다. 그렇게 나의 분주한 하루가 커피와 함께 시작된다.

새벽
커피가 마시고 싶은 3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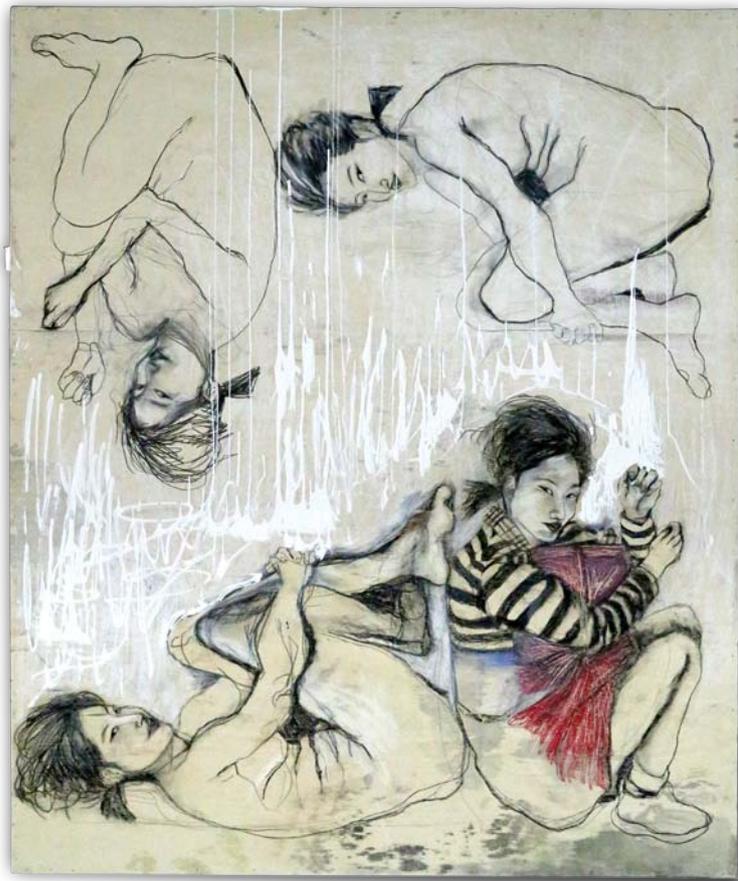


아무도 관여하지 않는 내 자유의 시간이다,
하체야 같이 온다, 커피가 마시고 싶다,
가연스레 커피를 그린다, 늘 그렇듯이
뭉 뜰쯤 마스커피에 블랙 입자를 섞어서
마신다.



맛있다. 쟁곳
바람이 사랑부는 바닷가에
있어야 하는 상상을 한다





‘베뉴판엔 내

친구들의 이름처럼 익숙하고

멋진 이름들이 적혀있다.’

1.

수많은 작가와 고뇌의 젊은이들이 강릉을 스쳐지나간다. 커피를 음미하는 그 순간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바라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으리라.

자신의 머릿속에 그려진 인간 군상과 그 굴레를 문자와 이미지로 옮겨내기 위해 시작된 그 고통스런 과정은 마치 순례자의 길을 연상시키며, 하루 몇 잔의 커피로 그 상처를 어르고 달래는 과정이 스치는 순간 자연스레 오래된 책을 코로 가지고 와 본다.

우연히도 오래된 그의 책에서 잔잔한 커피향이 난다. 인스턴트커피로는 설명 할 수 없는 세계와 닮아 있다. 작가의 흥내를 내며 카페 안을 두리번두리번 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시야에 들어오는데 그 관계와 관계가 이 공간 또는 이 거리에서 수많은 소셜적 사건과 이야기로 구성될 수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지금의 커피 향은 결코 이전의 커피 향과는 차원이 다른 의미를 갖는다.

두근두근 가슴이 뛰다.

다량의 커피가 만들어낸 부작용인지 상황이 만들어내는 환각인지는 나는 모른다.

그런 커피가 좋다.

2.

커피 좋다.
 메뉴판엔 내 친구들의
 이름처럼 익숙하고
 멋진 이름들이 적혀있다.
 어쨌든 나셨다.
 나는 좀 야맹증이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밝은 거리로 골라서
 돌아다니기로 했다.
 그리고는 경성역 일대 등 대합실
 한 곁 티이루움에 들렀다.
 그것은 내게는 큰 발견이었다.
 거기는 우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안온다.
 설사 왔다가도 곧들 가니가 좋다.
 나는 날마다 여기 와서
 시간을 보내리라 속으로
 생각하여 두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주앉아서 잘 끓은 커피를 마셨다.
 총총한 가운데 여객들은 그래도
 한 잔 커피가 즐거운가보다.
 얼른 얼른 마시고 무얼 좀 생각하는
 것같이 담벼락도 좀 쳐다보고 하다가
 곧 나가버린다.
 서글프다.
 그러나 내게는 이 서글픈 분위기가
 거리의 티이루움들의
 그 거추장스러운 분위기보다는
 절실하고 마음에 들었다.

이상 작 '날개' 중에서

날개의 작가 이상에게는
 좋은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도 아니며 더더군다나
 잃어버린 날개도 아니다.
 커피다.
 친구들의 이름처럼
 익숙하고 멋진...

이상의 커피 집착은 결핵 요양 차
 지내던 시골에서 커피를 마신지
 이십 여일이 지나 미각을 잃었다는
 하소연을 한 것으로 유명한데
 사실 딱 10년 강릉에서 생활하면서
 커피를 이를 이상 못 마셔 본 적이
 없는 듯하다.
 그저 약속이 아니더라도
 커피가 일상의 대부분을 함께 하고
 있으며, 매일 각기 다른 원두와
 추출, 드립 방법으로
 수많은 바리스타의 커피를
 맛보더라도 강릉에서 죽히 몇 년은
 걸릴 일이다.
 그만큼의 전문가와 애호가를 동시에
 품고 있다는 이야기다.

개화기開化期 커피는 예향藝香 또는
 서권향書卷香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 맹아기萌芽期를 거치며
 수많은 작가와 예술가들의 영혼에
 영감으로 자리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대화를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었다.

슬픔은 애잔함의 깊이를 더하게 하고
 기쁨에는 절제력을 귀뜸하며,
 사랑이라는 단어와는 늘 함께였다.
 나 역시 그녀의 고급스런 찻잔과도
 같은 손을 잡고 내일도 다음 주도
 그 다음해에도 티이루움으로 향하고
 있을 것이다.

이상이 갈구하던 그 귀한 커피향을
 너무도 쉽게 접근하는 미안함을
 뒤로하고...







미대자판기

가장 뜨거운 여름의 중심
아무도 없으리라 예상했던 실기실에
정체불명의 한 사람이 있다.

아름다운 여인에 집중한
예비 작가는 다가가도 모를 정도의
집중력으로 불투명한 미래를
뚫어가고 있다.

눈이 마주치고 인사를 나누기 전까지
그는 그림에 나뉘는 그림에
빠져 들어 있었다.

여기저기 물감 지뢰밭이라
어디 하나 마음 놓고
앉을 수 없는 곳,
그 곳을 벗어나 이 무더위에
갈 수 있는 최단거리의 동선.

그 곳은 미대생 특유의 후줄근함과
물감, 안료 냄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

바로 현관 안쪽이라
야행성 드라큘라 마냥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자판기!

너무나도 저렴한 가격에
교내 카페만큼이나 다양한 메뉴
그리고 맛 또한 뛰어난
외부의 많은 이들이
일부러 찾아오기도 한다는
자판기가 미대에 있다.

수많은 작가들의 당과 카페인을
책임지는 미대의 자판기야말로
진정한 영혼의 119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미술관에선 어떤 커피를 마실까?

“환상의 장막에
가리워진 큐레이터,
그녀의 커피”

Q: 우선 강릉시립미술관이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저희 강릉시립미술관은 2006년 9월에 개관하여 지난해는 미술관 등록을 받아서 강원도에서 유일한 시립미술관 입니다. 전시장 규모는 좀 작지만 5개에 전시실로 구성 되어 매년 60회 이상의 전시가 이루어지구요. 그동안 다양한 전시를 통해 미술을 보다 친숙하고 좀 더 가깝게 접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시나 감상의 역할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예술적 즐거움을 선사하는 공간으로 변신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Q: 혹시 커피 좋아 하시나요? 즐겨 마시는 커피가 있으시다면 어떤 커피인지 그리고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신다면?

A: 커피 좋아합니다. 마시는 것 보다 사실 커피향이나 커피관련 용품들을 더 좋아합니다. 커피 맛 그런 건 잘 모르구요. 그리고 제가 즐겨 마시는 커피는 커피믹스죠^^ 하루에 2-3잔 정도는 꼭 마시거든요. 믹스를 마실 때는 나름 원칙도 있습니다. 일단 종이컵에 마십니다. 물은 50ml정도만 부어서 스푼으로 3번만 저어서 먹습니다. 어떤 날에는 점심을 먹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면 갑자기 제가 살아 있음에 너무 행복하다 라는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실 믹스커피를 즐기기 보다는 습관처럼 때로는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갖는 시간이라고 해야 하나요.



고급문화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미술관 역시 사람 냄새 가득한 곳으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소통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잠시 여유를 가지고 미술관으로 향해보는 것을 제안하며 세 번 저은 커피 맛에 빠져본다.

Q: 커피와 관련해서 특별한 기억이 있으시거나, 화가와 커피는 관계가 좀 있을까요?

A: 저는 해외여행을 가면 꼭 그 도시의 카페 한곳을 들러 커피를 마시고 그 나라 텀블러를 사오는데요. 예전에 프랑스를 갔을 때 밤늦게까지 카페 야외 테라스에서 혼자 커피 한잔을 마시는데 갑자기 고흐의 “밤의 카페테라스”라는 그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를르 카페 2층, 낡고 허름한 방에서 혼자 살았던 고흐도 “밤의 카페테라스”의 실제 장소인 아를르 카페에서 자신의 전시회가 열리기를 갈망했을 정도로 커피는 특히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감과 위안을 주는 대상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흐는 커피를 좋아했던 화가이기도 하고 특히 예멘 모카 마타리라는 커피를 즐겨 마셨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Q: 커피를 마시면서 보면 좋은 것 같은 그림이나 혹은 커피하면 생각나는 그림 있을까요?

A: 그림을 볼 때는 일단 진한 원두커피가 좋을 것 같네요. 커피는 어찌 보면 단순한 기호나 취향을 넘어서 요즘 현대인들의 바쁘고 긴장된 삶의 연속인 가운데 잠시 마음의 위로와 유일한 휴식시간 같은 거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혼자 커피 한잔을 마시며 삶의 단편을 무심하고 무표정하게 그리고 인간의 쓸쓸함과 고독, 외로움을 잘 표현한 미국화가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들을 보면 어떨까요? 특히 Automat 라는 그림을 보면 한 여인이 손님 하나 없는 낯선 카페에 혼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커피를 다 마셔 버리면 기다림도 끝나 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커피를 다 마시지도 못하고 계속 잔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모습의 그림인데요. 그 여인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 낯선 곳에서의 설렘과 약간의 두려움이 공존하는 모한 그 느낌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모르게 이 그림을 볼 때 마다 진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Q: 그림을 보는 게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는데, 미술을 즐기는 방법 같은 것이 있을까요?

A: 사실 미술을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감상인데요. 이런 미술 감상은 꼭 미술관이나 갤러리를 직접 찾아서 관람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림은 직접 보아야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통 미술관에 오셔서 그림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미술은 각자 마음 가는 대로 느끼면 됩니다.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느껴야 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이유는 낯설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도 처음 보면 웬지 어색하고 불편하고 그렇지만 자주 만나다보면 익숙하고 편해지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그림을 보시다가 모르시면 전시실에 계신 작가분이나 혹은 저와 같은 큐레이터에게 물어 보시면 됩니다. 그림은 알아야 이해하고 이해해야 그림을 즐길 수 있는 눈이 생기는 법이니까요. 오늘 부터라도 가까운 미술관이나 갤러리에 방문 하셔서 미술을 새롭게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요.

Q: 앞으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A: 사실 시립미술관은 신진작가들에게는 좀 문턱이 높은 곳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지역에서는 신진작가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신진작가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으로 신진작가공모사업과 또 다양한 시도로 지역작가들과 함께 전시를 매년 진행 해왔습니다. 올해도 지난 8월에 열린 “강릉 in 여행 드로잉전”과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야외 영상전인 “미술관 정원전Ⅱ”가 진행 되었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신진작가들과는 함께 커피와 콜라보레이션 하는 재미있는 기획도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365일 커피향의 바다를 본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오랫동안 바라본 것을 닮는다’고 했던가?

내 인생의 주제는 바다이고 커피와 바다는 똑같이 닮았다. 바다는 1분 1초에도 같은 표정이 없다. 커피도 만드는 사람에 따라 물, 온도, 누가 블렌딩을 하고 누가 로스팅을 하는지에 따라 전부 맛이 다르다.

늘 바닷가가 보이는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 중 커피를 가장 많이 마실 때는 열잔 정도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직전까지의 전혀 다른 커피의 맛을 즐긴다.

지구촌에서 주로 가는 곳이 sea side(바닷가 근처)다. 일반인들은 나의 직업을 감독이라고 하는데 해양 다큐멘터리스트로 불리는 것이 더 좋다. 다큐멘터리 장르는 자연다큐, 시사 다큐, 드라마 다큐 등 많다.

내가 하는 작업이 유일하게 바다 속의 해양생물을 다루는 해양 다큐멘터리여서 다큐멘터리스트가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카메라를 잡으면 감독을 생각하는데 사실 자신의 작품이 있는 사람을 감독이라 한다. 바다를 무대로 활동하는 내게는 해양 다큐멘터리스트가 적절하겠다.

우리 집 앞 바다는 늘 봐서 그런지 너무나 편안하고 커피와 너무나 닮아있다. 내게 바다와 커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제일 처음 바다를 여행하면서 주로 커피를 생산하는 인도네시아나 파푸아뉴기니 지방을 많이 다녔다. 당연히 커피를 생산하는 지역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

커피를 조금씩 접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토라자지역이나 자바지역, 브라켄 지역은 맛이 다 다르다.

또 하나 사향고양이가 만들어 내는 루왁 커피도 있다. 특별히 맛있기보다는 다 똑같은 좋은 맛이다.

바다도 커피도 인생도 모두 각기 다르지만 아름다움을 감추고 있다. 그 다양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것이 내 사명이 아닐까 한다.

특별한
만남

만남 1. 소곤소곤 연애



두근두근 커플 데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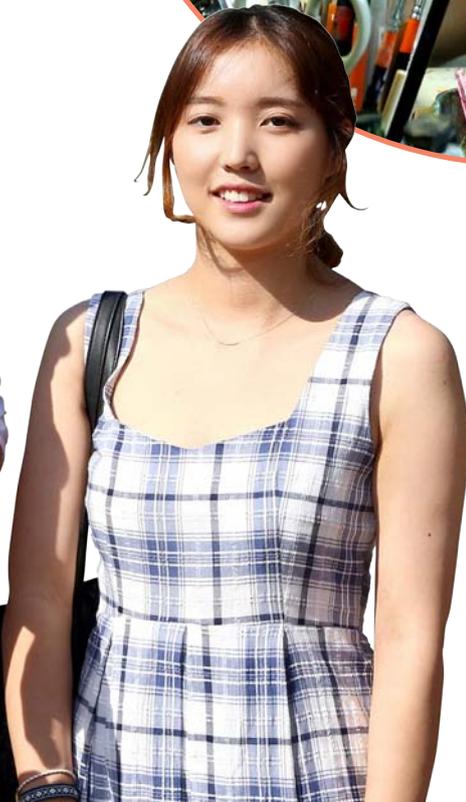
예술인창작인촌

오죽헌

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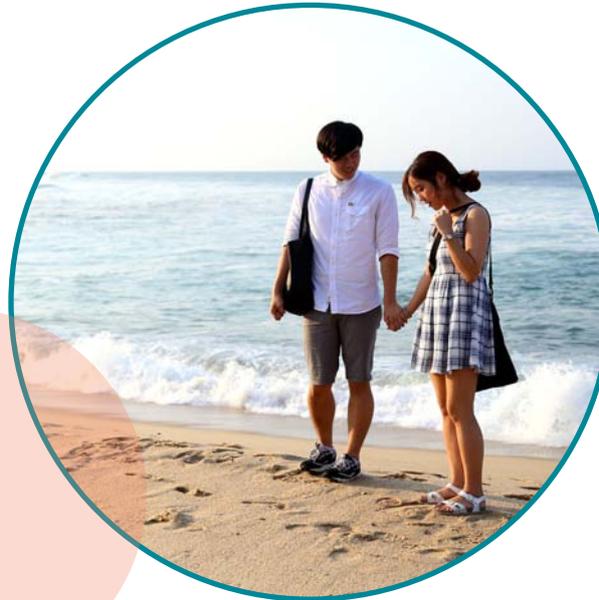
우리 커플이 처음 만난 곳은 카페다.
한 명은 직원, 한 명은 알바생으로 만났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데이트를 할 때 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을 즐기고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 것은 일상이 되었다.



예술인창작인촌 체험:

차수박물관, 갤러리 토(토)

이따금씩 문화생활을 위해서 일부러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찾기도 한다.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방 체험 등은 평소에 할 수 없는 재미있는 일거기에 두 배의 추억으로 기억된다.



오죽헌 : 경내, 박물관

강릉에 사는 나에게 오죽헌은 언제나 익숙한 곳이었다. 어렸을 적에나 방문했던 오죽헌을 가까이 있음에도 20대가 훌쩍 넘어 다시 방문하니 감회가 새롭다.

안목 : 카페 kkrus, 바다

새로 생긴 카페를 찾는 일은 즐거운 데이트 코스 중 하나이다. 서로 커피나 디저트를 먹으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후 바다를 거닐기도 한다.

특별한 만남

세 얼간이들의 위험 위대한 컵의 향로를 따라서

“여행의 끝은 이 땅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를 가득 담아야
멈출 수 있는 저주”

7월20일 어느 구석진 차고에서 세 남자가 요상한 차림으로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세 얼간이’라고 칭하였다.

강릉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를 타고 여행하기로 한 ‘세 얼간이’들은 그 누구도 말리지 못하였고, 간혹 목격자들은 그들이 반짝이는 무언가에 홀려 가던 것 같다고 진술을 하였다. 그 목격을 마지막으로 그들은 지구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다행히도 일행 중 한 명이 쓴 일기만이 유일한 단서로 전해지고 있다. 그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얼간이력: 14년 7월 23일

날씨: 맑음 / 자전거상태: 이상 무

경로: 강릉 → 동해

우리는 반짝이는 ‘컵’이라는 피조물의 부름을 받아 이 여행을 시작한다. 여행의 끝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를 가득 담아야 멈출 수 있는 저주로 이 컵은 무조건 출발을 주문하고 있다. 과연 그 끝이 어디일지, 궁금하여 이 여행에 도전하여본다. 많은 이들이 위대한 컵의 향로에 도전하였다. 성공한 삼대 성인의 이야기를 간직한 채로...

우리는 행운의 여신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랄 뿐이다.

첫 출발은 그저 좋았다. 강릉이라는 도시를 나 스스로의 힘으로 직접 벗어남다는 희망과 희열에 차 있었다. 다들 기쁜 마음에 들떠 신나게 페달을 밟았다. 그때 가방 어딘가에서 빛을 발하던 ‘컵’의 경고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이 이 여행의 가장 큰 화근이었다.

‘컵’의 경고를 듣지 못하고 계속되는 순풍에 들뜬 우리들은 계속해서 달려갔다. 그렇게 달려간 끝에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맞이하였으니 이를 하여 오르막 차로! 그 파도를 넘어서기 위해 종아리에 모든 힘을 다 퍼부어 파도를 넘고자 하였으나, 여름의 장마처럼 쉴 새 없이 우리를 덮쳤다.

또한 여름의 폭염은 우리의 온몸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고, 타 들어가는 목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몇 방울 남지 않은 물을 목으로 넘길 뿐이었다. 아!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모금만 제발!

힘겨운 파도와 순풍의 길을 반복하기를 20여 번 만에 목적지에 도착한 우리는 첫 여행의 피로를 일행의 아버지 맥에서 풀기로 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생애 처음 경험해본 향로의 위험을 잊지 못하고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일간이력 : 14년 7월 24일**날씨 : 맑음 / 자전거 상태 : 이상무****경로 : 동해 → 북면**

휴식으로 조금이나마 어제의 충격에서 벗어난 우리는 다시 여행의 준비를 시작하고 떠나려는 순간 저 멀리서 위대한 '킵'의 외침이 들렸다. 그 소리는 사람의 소리도 아닌 동물의 소리도 아닌 땅에서 우리나라는 무엇이 모두의 귀를 강타했다.

'작은 구멍에서 시작된 재앙은 점점 커질 것이고 너희들의 희망과 열정을 집어 삼킬 것이다. 이 항로를 따르는 자들은 누구나 이 과정을 거쳤고 너희들 또한 받게 될 심판의 과정이다. 커피향이 나거든 언제나 컵을 높이 쳐들라.'

이 말을 마지막으로 '킵'은 더 이상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 심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호기심과 함께,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의 여정에 검은 연기처럼 피어올랐다. 과연 우리가 이 여정을 끝까지 제대로 끝마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한 계시보다는 당장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가장 큰 문제였다. 길을 찾기 위해 수도 없이 지도를 보며 길을 찾아 헤맸다. 막다른 길이 나오면 돌아가야 했고 비포장도로가 나오면 자전거의 바퀴에 무리가 갈수 있어 내려서 걸어가야 했으며, 심지어 내리막길이 나왔을 때에는 뒤의 차에 유의 하며 속도를 맞춰야 한다.

이러한 극악의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킵'이 말한 위대한 항로에 계속해서 도전했다. 중간 중간 간혹 우리의 여정을 응원해주는 고마운 분들을 만나기도 하였다. '파이팅'이라고 응원도 해주셨고, 때로는 차의 경적 소리로 응원을 해주셨다.

그 응원소리에 힘입어 열심히 달린 끝에 우리는 드디어 그곳에 도착하였다. 이 여정을 따르는 자는 누구나 지나가는 그 '성소'에 우리가 도착한 것이었다. 너무 감격스러워 혼자 산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다. 아니 한 마리의 호랑이같이 포효했다. 이 기쁨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겪어 본 자만이 아는 기쁨이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강원도 Good - bye Gangwon - do

이 표지판이 보였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렸다. 고3때에도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지 못한 강원도를 지금 이 순간 나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난 것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날이 저물어간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강행과 비박의 기로에 놓였다. 하지만 마트 앞 주차장에 자리를 깔고 누운 우리는 얼마 동안 잠을 청하지 못하였지만 강원도를 벗어난 그 하나만을 생각하며 기쁘게 잠이 들 수 있었다.

일간이력 : 14년 7월 25일**날씨 : 맑음 / 자전거 상태 : 이상 무****경로 : 북면 → 영덕**

'세상이 망하고, 시험을 망치고,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여도 시간은 간다!'고 누군가 한말처럼 우리에게도 아침이 밝아왔다. '오늘 아침에도 '킵'의 예언이 있을까?' 내심 기대하면서 아침밥을 먹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아침부터 출발하기에는 너무 몸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끝이 보일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행운의 국도인 7번 국도는 우리의 여정을 축복해주었고 지금껏 다녔던 차도와와는 다른 자전거 전용도로를 선물했다. 너무나도 순조로운 여정 탓에 '킵'의 예언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20살이 되면 누구나 가지는 특권인 맥주 한 병으로 우리의 여정을 기념했다. 서로 이번 여정을 통해 배워가는 것이 많을 것 같다는 덕담과 함께, '언젠가 이곳에 우리 셋이서 다시 와 이곳을 추억해 보자!' 라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즐거웠던 시간은 흘러가 버렸으며 끊겨버린 자전거 도로는 우리를 국도로 인도했고, 눈앞에는 '터널'이라는 거대한 관문이 기다리고 있었다. 상상해 보라. 자신의 1m 옆을 거대한 덤프트럭이 100km의 속력으로 지나간다면 어떠한 기분이 들겠는가? 다리가 후들 거리고 눈앞이 캄캄하여 당장이라도 이 먼지의 천국인 터널을 나가고 싶을 것이다. 그 무서움은 이 후에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여행에 박차를 가하니 점점 등에 있는 짐이 어깨를 짓누르고, 머리 위의 햇살은 언제나 따갑게 따라

다녔다. 더불어 무쇠 같았던 나의 다리는 어느새 갈대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끝을 보고 싶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때 선두를 달리던 일행의 타이어가 7번국도 한 가운데에서 바람이 빠지며 터져버린 것이다. 너무나도 당황스러워 그 자리에서 10분가량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때 문득 첫날 '킵'의 예언이 떠올랐다.

'작은 구멍에서 시작된 재앙은 점점 커지고...'

이 말 그대로였다. 타이어의 작은 구멍 하나가 점점 재앙이 되어 해가 저버린 상황에서 우린 7번 국도 한 가운데에 덩그러니 남겨져 버린 것이다.

더 이상의 여정을 불가능 하다고 생각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했다. 다음 목적지인 영덕까지는 11km가 남았는데... 날이 밝으면 움직이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국도에서 떨어진 어느 항구로 이동했고, 지금 이곳에서 이 글을 쓰면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다. 아쉽게도 우리의 여정은 여기 까지 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했다. 더 이상의 행군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터져버린 타이어, 굶주린 배, 피곤한 몸, 땀으로 찌들어 버린 옷들을 건디기에 '위대한 킵의 항로'는 너무 커다란 관문이었던 것 같다.

'킵'의 부름을 아쉬움으로 달랠 즈음 컵은 다시 빛을 발하여 정확히 우리가 출발한 강릉을 가리키기 시작 했다. 갈매기마저 잠들어 버린 이 조용한 포구에는 파도소리와 세 얼간이의 탄식만이 흐르고 있다. "아! 이 저주를 푸는 열쇠는 강릉에 있었구나!"

일간이력 : 현재**새로운 세대의 탄생 - 새로운 시작**

몸으로 얻은 교훈은 잊을 수 없는 법. 강릉 어느 곳의 커피를 담아도 저주를 풀 수 있는 커피라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커다란 시련이 따랐으며 사람들은 아직도 이런 우리를 세 얼간이라 칭하지만 뭐든 시도조차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히 말한다.

희망을 가진 한 포기 하지 말라곤

소보소보 싸이클링 빙수차커림 우지기도 소보소보

저희들은 늘 가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업소 난 강동적인 영화를 보고, 아저지처럼 물건들이 가득한
 팬시점에 가서 이것저것 써보고 구경해요. 늘 핸드폰으로만
 사진 찍어 아쉬운 마음에 재미난 스타커 사진을 찍으러도 가요.
 아. 영화는 안 보더라도 요즘 같은 날씨엔 시원한 빙수를 꼭!
 먹어야 해요. 빙수 하나를 놓고 사진도 찍고 학교 얘기, 연예인
 얘기, 등 현비탕 수다를 떨고 나면 그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공감해 줄
 수 줄수 있어 우정이 더 돈독해지는 것 같아 빙수에게도
 고마움을 느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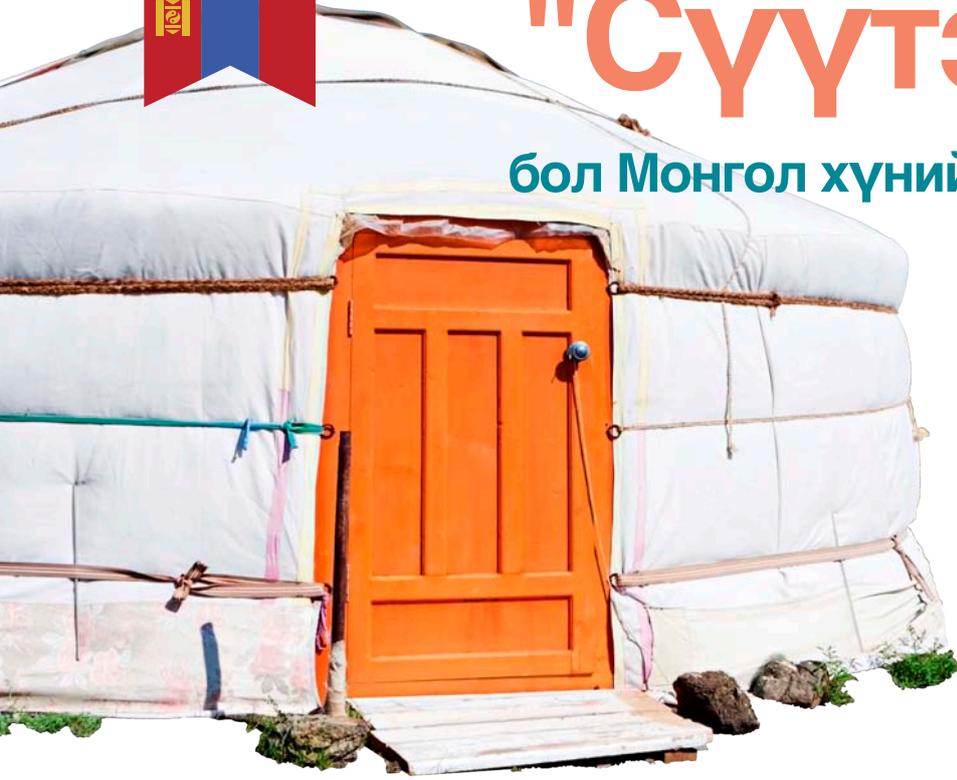






"Сүүтэй цай"

бол Монгол хүний салшгүй нэг хэсэг



Та Монголын талаар сонссон уу? Магадгүй Монгол гэхээр үзүүр нь үл үзэгдэх тал дээр морь унаж, үндэсний гэрт амьдарч, хонь хариулсан улсаар л төсөөлж байна уу?

Тиймээ. Монгол бол өргөн уудам газар нутагтай, тал нутгаар нь дүүрэн бэлчсэн үхэр, адуу, тэмээ, ямаа, хонин сүрэгтэй, цэнхэртэн дуниартах тал дээр танан цагаан гэрээ барин амьдардаг нүүдэлчин ард түмэн билээ. Дэлхийн соёлыг даган хөгжиж, хот суурин соёл иргэншилд шилжин амьдарч байгаа нэгэн байхад эсэргээрээ эртний уламжлалаа хадгалан нүүдэллэн амьдарч буй нэгэн ч бий. Тиймээс Монгол орноор аялавал аль алийг нь үзэх боломжтой юм. Нүүдэлчин Монголыг морьгүйгээр төсөөлөхөд бэрх шиг үндэсний уламжлалт цайгүйгээр ч төсөөлөхөд бас бэрх.

Монгол уламжлалт цайны найрлаганд цөөхөн нэр төрлийн орц ордог ч чанаж буй хүн, тухайн айлын уламжлалыг дагаад амт нь өөр өөр байдаг. Цайг чанахдаа эхлээд тогоондоо усаа хийгээд дээрээс нь амтыг нь тохируулан сүүгээ нэмнэ. Тэгээд амтлах зорилгоор цайны навч болон давс хийж буцалгана. Цайны навч болон сүүнээс хамааран амт нь өөр болдог.

ай нь амны цангаа тайлахаас гадна өөр олон чухал утгыг агуулдаг. Цайг идээний дээж гэж үзэн зочин ирвэл заавал шинээр цай чанаж өгдөг уламжлалт бөгөөд холоос айл нүүдэллэн ирэх юм уу дайран өнгөрөх үед гэрийн эзэгтэй цай, идээ бэлдэн тосон очиж мэндэлдэг. Мөн гэрийн эзэгтэй өглөө эртлэн босож цайгаа чанаад дээжийг нь тэнгэр хангайдаа өргөдөг. Цайг аягалахдаа гэрийн эзэнээс эхлэх ба гэрийн эзэн байхгүй тохиолдолд аяганд нь хийж хадгалах ёс бий. Үүнээс харвал Монголчуудын хувьд цай нь чухал үнэ цэнэтэй ундаа юм.

Хот суурин газрын хүмүүс уламжлалт цайгаа уухын хажуугаар дэлхий нийтийн салшгүй хэрэглээ болсон кофег ч амтархан уудаг болсон. Үүнийг дагаад кофешопууд ч олноор нээгдэн залуучууд ихээр үйлчлүүлж байна. Тиймээс аялалд дуртай хүмүүс Монголд очвол кофегаа санах асуудал үүсэхгүй тухтай аялах боломжтойгоос гадна уламжлалт цайг уугаад үзэхэд гэмгүй юм. Монгол руу аялахад бэлэн үү.

몽골인의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우유차”

“몽골”이란 나라를 들었을 때 무엇이 생각나는가?

아마도 몽골이라면 넓은 초원에서 말을 타고, ‘게르’(전통 가옥)에서 살고, 양을 키우는 사람들을 떠올릴 것이다.

맞다. 몽골인들은 넓은 초원에서 소·양·염소·말·낙타를 키우면서, 하얀 게르에서 자고, 계절마다 유목하는 삶을 살아왔다. 요즘은 경제가 발달하면서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의 모습도 세계의 어느 도시와 다르지 않게 발달하고 있지만, (울란바타르도 강릉과 마찬가지로 높은 건물에 대형마트, 아파트촌을 갖추어 가고 있다.) 그러나 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여전히 유목생활을 하고 있으며, 유목적 전통은 몽골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여전히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유목 민족을 말[馬] 없이 상상하기 어려운 만큼, 식생활에서는 우유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목축을 하는 유목민들에게 우유는 가장 중요한 식재료로서, 그냥 마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 차(茶)로 만들어 마신다. 우유차(몽골어로는 “수테체”라고 하며 ‘우유가 들어간 차’라는 뜻이다)는 몽골의 전통차이며, 몽골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마시던 유일한 차이다. 지금이야 우유를 넣지 않은 차도 많아졌지만, 아직도 어르신들은 우유를 넣지 않은 차는 차가 아니라고 여긴다. 전통적으로 몽골인들은 이 우유차를 모든 음식의 첫술로 여겼으며, 차를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왔다.

몽골의 우유차는 그 재료와 만드는 방법이 간단하다. 먼저, 냄비에 물을 넣고 적당한 양의 우유를 넣는다. 여기서 물을 먼저 넣는 것이 중요하다. 몽골인들은 물은 까만 색이고, 우유는 하얀색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까만색 물에

하얀색 우유를 넣어 깨끗하게 해야지, 하얀색 우유에 까만색 물을 넣으면 그 집의 복(福)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했다. 그 후에는 맛을 내기 위해 소금과 녹차 잎을 넣고 끓이는데, 요즘에는 간단히 녹차티백을 넣기도 한다. 우유나 소금의 양, 녹차 잎에 따라 다른 맛을 내게 되므로, 만드는 사람이나 그 집의 특징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

몽골 사람들에게 우유차는 마시는 음료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몽골인들은 우유차를 음식의 최상이라고 보았다. 손님이 오면 꼭 새로 만들어 드려서 존경의 뜻을 표하고, 풀을 찾아 이동 중인 다른 가족이 오거나 잠시 지나갈 때는 꼭 우유차를 준비하여 마중했다. 갓 결혼한 신부나 한 가정의 어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 우유차를 만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우유차가 완성되면, 그것을 그릇에 담아 집 밖으로 나가서 허공에 뿌리는데, 첫술은 하늘에 드린다는 의미로 하늘에 뿌리고, 다음에는 땅에 드린다. 세번째로는 남편에게 주는데, 만일 가정이 없는 경우 가장이 사용하는 컵에 따른 후에, 다음 사람들에게 준다. 이처럼 몽골의 우유차는 서로에게 존경을 표하고, 자연에 복을 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최근에는 몽골에서도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도시에는 카페가 많이 생겨서 지금은 몽골에 가더라도 평소 즐겼던 커피를 쉽게 마실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몽골인의 삶에서 우유차는 대체 불가능하다. 몽골에 오면, 평소 좋아하는 커피와 함께 몽골인의 정신이 깃들여 있는 우유차를 맛보면 어떨까?

不思議な空間

韓国、日本のカフェの違い

韓国の街並みを見るとカフェがとても多い。食堂の量も日本より多いがカフェの量は圧倒的に多い。カフェの横がまたカフェということがよくある。日本のコーヒーチェーン店と例えば片手で数えきれるほどしか思いつかないが韓国は20店舗を軽く越す。カフェの広さも広く、日本であまり見られない2階立てのカフェもよく見る。また何より個人経営のカフェが多い。そもそもなぜここまでカフェが増えたのか気になるが、それよりも経営する際に相当な苦勞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たもののいつも客が多くて不思議だ。なぜ、こんなに韓国人はカフェに通うのか？ コーヒー中毒者が多いのか？ 違う。カフェの居心地が良いからだろう。アメリカン1杯ご何時間居ても迷惑がられない。携帯の充電がきれる勝手にコンセントを使っても「電気どろぼう」とは言われない。Wi-fiは誰でも無料で利用できる。もはや韓国人にとって当然のことだろうが、ゆっくり落ち着けるカフェが多い韓国が羨ましい。「久しぶり会った友だちとカフェ」「家族と外食したあともカフェ」「先輩に勉強を教えてもらうときもカフェ」「恋人とデートするときもカフェ」いつでも、誰とでもカフェに行く。少しでも長く大切な人と時間を共に出来る。ゆっくりと出来る空間だ。

コーヒーが目的というよりも、一緒に居る人との時間が重要なだろう。人と人との関係をよくするための手助けをしているカフェ。少し価格が上がったと言われている韓国のコーヒーであるが、惜しくないお金だと思う。





낮선 풍경

한국, 일본 카페의 차이점

한국의 거리는 카페로 가득 차있다. 식당 역시 일본보다 많지만 카페의 수는 압도적으로 많다. 길을 지나가면 카페 바로 옆에 또 카페가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일본의 프랜차이즈 카페는 종류가 많지 않음에 반해 한국은 20 종류도 거뜬히 넘고 크기도 크다.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2층으로 된 카페도 많고 무엇보다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가 많이 눈에 띈다.

카페의 수가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궁금하지만 그보다 '이렇게 카페가 많으면 경영하는데 있어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카페를 가보면 항상 손님이 많아서 신기하다. 왜 이렇게 한국사람들은 자주 카페에 갈까? 커피 중독자가 많은 것일까? 아니다.

그 이유로 카페는 편하게 오래 앉아 여유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싶다. 한국의 카페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고 몇 시간을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콘센트를 사용해도 '전기도둑'이라고 하지 않는다. 또한 wi-fi는 누구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의 카페뿐만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는 밤 늦게까지 문을 닫지 않기도 한다. 현재 한국인에게는 이런 점들이 당연한 일이지만 일본인인 나에게는 낯선 풍경이기에 충분히 편히 즐길 수 있는 카페가 많은 한국이 부럽다.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문화가 한국카페의 문화라면 일본에서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카페가 많다. 그래서 점심 시간 때, '저 카페에서 먹자!'라는 말이 잘 사용한다. 물론 일반적으로 카페라고 하면 커피를 마시는 곳이지만 식사와 더불어 후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도 카페라고 한다. 그래서 시간이 없을 때 가는 프랜차이즈 카페나 커피의 맛을 즐기기 위해서 가는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일본에서 어떤 카페나 핸드드립), 여기에 덧붙여 식사 중심의 카페들이 있다. 한국처럼 편히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다른 즐거움이 있다.

한국사람들이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얘기를 나눌 때도, 가족과 외식 후에도, 선배에게 공부를 배울 때도, 애인과 데이트를 할 때도 언제나 카페를 찾는다. 눈치를 볼 일도 없으니 조금이라도 더 오래 편히 소중한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커피가 목적이 되기보다는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사람과의 관계를 더 깊게 연결시켜주는 것이 카페라고 생각한다. 가격 면에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다양한 서비스와 부담 없고 편안한 분위기를 생각하면 아깝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한다.

커피의 쓴맛이 익숙해질 무렵



나이는 딱 20대 중반,
몸만 어른인 4학년.

용돈 받는 어른에게 교내 카페에서
파는 1800원짜리 아메리카노도
어찌면 사치다.

용돈 보태려고 시작한
교내국가근로.
(엄마는 모른다.
내 옷과 신발의 출처를)

커피를 좋아하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점심을 먹고 일찍 가면

직접 내려주시는
핸드드립 커피한잔을
얻어먹을 수 있다.

도서관에 쳐 박혀있다 답답할 땐

'커피 한 잔 마시고 오자'는 것만큼
좋은 핑계가 없는 것 같다.

예전엔 힘들었는데

4학년이라 그런가.

혼자가 익숙하다.

어른은 어른인가보다.

혼자 있고 싶다가도 하루반나절
혼자 있다 보면

가끔 외로움에 질 때가 있다.

이럴 때 사람 구경하러 가는 카페

조용한건 좋은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사람이 없다.

커피,

카페,

카페.

그 많던
다방은
어디로
갔을까?

비슷한 발음의 세 단어들.

요즘 카페들이 많이 생겨난 것을 보며 이것도 새로운 문화인가 싶었다.

친구를 만나거나 학교과제, 공부를 하더라도 카페에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만큼 저렴한 값에 좋은 환경이 제공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다가 문득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기 위해선 카피하는 행동과 심리가 필요할 것 같았다. copy는 베끼기 모방 등의 의미가 있는데, 나는 좋은 것을 보면 모방하고 베끼고 싶은 것이 당연한 심리라고 생각한다.

분명 카페가 늘어난 배경에는 날로 발전되는 시스템과 서비스 그리고 문화의 한 축으로 만들어 내는 전력이 합쳐지면서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한 때 커피에서 촉발한 '된장녀'라는 단어는 일상으로 흡수되어 버렸다. 위의 세 단어를 중얼거리며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커피문화를 이해해 보려는 요즘이다.

안목을 보는 안목

‘십여 년이 지난 후에도’

지금의 안목이 되기까지 :

내가 어릴 때 안목에 처음 갔던 시절에는 지금처럼 커피거리로 유명해지기 전이었다.

지금처럼 사람들이 많이 오지도 않았고 유명하지도 않은 아는 사람들만 오는 작은 바닷가였다. 카페 대신 횃집들이 줄지어 있었고 사람들은 바다에 오면 회나 조개구이를 먹었다. 그러다가 인스턴트 커피 자판기가 생기고 바닷가와 커피를 함께 즐기는 낭만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사람들에게 안목바다는 더 매력적인 이미지가 되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안목을 찾게 되면서 커피자판기도 늘어갔다.

그 시절엔 한국에 핸드드립 문화가 거의 없었다. 그러던 중 “박이주”라는 커피장인이 핸드드립 기술을 전수 하면서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리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 사람들이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리는 “카페”를 열면서 안목바닷가에도 카페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점차 지금의 사람들이 즐겨 찾는 커피거리 모습이 되었다.



어릴적 부터 자주 찾던 안목은 내 모습 만큼이나 많이 자라있다.



안목 즐기기 :

안목에서 즐기는 방법은 다양하다. 커피를 한 잔 하면서 분위기 있는 바다감상하기, 안목에서 경포까지 이어진 바우길 걷기, 방파제 끝에 있는 빨간 등대까지 다녀오기, 안목에서 남향진까지 이어진 테크 산책하기 등 다양하게 입맛대로 놀 수 있다.

안목의 커피거리 카페들은 여러 가지 형태이다. 개인적으로 운영하며 핸드드립을 내려주는 곳이 있고 요즘 유행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 커피와 함께 빵, 케익 등 제과류 같은 간단한 에피타이저들을 함께 파는 곳 등 다양하다.

핸드드립을 즐긴다면 안목입구 쪽에 있는 코지를 추천한다. 코지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커피 향을 즐길 수 있다.

프랜차이즈를 좋아한다면 스타벅스,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네스카페, 방파제 쪽에 있는 할리스 등이 있으니 골라서 가보는 것도 좋겠다.

혹시 놀다가 배가 고파진다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카페 퀸베리도 좋다. 개인적으로 클럽샌드위치와 생과일주스를 함께 먹어보길 추천한다.

안목의 바우길은 소나무가 잘 심어져 있는데 소나무가 바닷바람을 막아줘서 걷기 좋고 소나무의 피톤치드가 공기에서 좋은 향이 나게 한다. 땅도 모래가 섞여있지만 소나무의 솔잎이 깔려있어 폭신하고 경사가 완만해서 걷기에 적합하다.

또 바우길의 즐거움 중 하나는 소나무기조를 볼 수 있다. 엄마소나무 옆에는 작은 아기소나무들이 자라는 모습이 아주 정겹다.

그리고 그 소나무에 자리 잡고 살아가는 청설모들도 사람들이 익숙한지 자주 나타나 장난을 치기도 한다. 가족이나 친구, 연인끼리 와서 오손도손 이야기하며 산책하기 좋다. 안목 바우길을 걸어서 경포까지 가보는 것도 좋다.

가볍게 산책하고 싶다면 안목에서 남향진까지 이어지는 테크를 걷는 방법도 있다. 안목과 남향진을 이어주는 다리가 있는데 여름밤에 강릉시민들은 더위를 피해 다리 위를 오르기도 한다. 밤바다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더위 속에서도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방파제 위의 빨간 등대는 멀리서도 눈에 띈다. 방파제를 건다보면 바다 위를 걷는 듯 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 색다른 경험이 될 것이다. 다만 파도가 높아지는 날은 위험하니 날씨가 좋은날에 가보길 추천한다.

십년 뒤에도 다시 가 보고 싶 'Da'

2012년은 나에게 많은 생각과 잊을 수 없는 기억과 추억을 준 해이다. 3년 동안 좋아했던 사람과의 사랑이 끝났고, 별다른 걱정이 없던 나에게 친했던 사람들과 크게 싸워 떨어지는 일을 경험 했으며, 갑작스런 엄마의 교통사고는 나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잡히지 않은 작업을 하던 도중, 힘들어 하는 나를 본 친한 언니가 시간이 있으면 차나 한 잔 하자는 것이었다. 우리는 서로 집이 가까운 택지에서 만났는데 어디서 차를 마시며 그동안의 안부를 나눌까 고민하던 중 풋살장 옆에 있는 'Cafe Da'로 향했다.

언니는 캐모마일 차를 마셨고 나는 시원한 아메리카노를 마셨다. 한창 힘들었던 나에게 언니는 무한공정의 힘을 주었고 은은하게 나는 커피 향과 함께 언니의 주옥같은 말이 내 귓가에 맴돌았다.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도 힘이 되었기에 자주 그곳을 들르게 되었고 힘이 들 때면 그때의 일을 회상하기도 한다.

보통 친구들과 약속이 택지에서 있는 날엔 "풋살장에서 만나" 라고 한다. 그럴 때 나는 약속시간보다 한두 시간 먼저 나와 그 카페에 가곤 한다. 카페에 앉아 늘 마시던 시원한 아메리카노의 맛은 어쩔지 나 나름대로 체크하는 재미가 있고, 사람이 많지 않은 시간에 찾아가기 때문에 작은 연습장을 꺼내 자유롭게 낙서하는 재미도 쏠쏠 하다.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고 있으면 그 음악에 따라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며 두근거리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추운 겨울날 마셨던 에스프레소의 맛은 아직도 잊지 못 한다. 딱 내가 찾던 맛이었기에 그랬던 것 같다. 진한 커피 향과 함께 입안을 맴도는 목직함과 혀끝을 살짝 자극시키는 에스프레소의 맛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가게로 발걸음이 옮겨지는 맛이 되었다. 나의 추억이 되어 기억 속에 자리잡혀있는 이 카페가 십년, 이십년 뒤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뽑아주시는 에스프레소와 함께 그땐 그랬었지 하며 추억에 잠기고 싶다.



하루의 법칙

나의 출·퇴근길 그 사이는 그야말로 카페 친국이다. 규모도 다양하고 건물, 인테리어 느낌도 제각각인 카페들로 가득하지만 회사에 입사한 후 나는 주로 회사 밑에 있는 '커피내리는 버스정류장'을 간다. 그다지 넓지 않은 아담한 카페로 그 내부에 뻣뻣하게 진열된 커피 기구와 소품들이 마음에 들어 더더욱 찾게 된다. 커피에 조예가 깊지 않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내려준 커피의 맛을 깊게 느끼진 못하지만 회사 인접리 한 카페에서 나만의 법칙으로 하루를 마감하기 위해 일부러 찾는 장소이다. 집 근처도 아닌 회사 밑에 있는 카페를 굳이 찾는 이유는 자신에 대한 짜증과 실망으로 가득 찬 생각을 노란 조명으로 덮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도 퇴근 후 회사 밑 버스정류장 카페로 향한다.

나는 답을 얻으려 안목에 왔다.



한 여자는 강릉으로 여행을 왔다가 안목을 찾았다. 바다를 따라 달콤한 커피 향, 탄 듯 쓴 커피향, 시큼한 커피향이 부서지는 파도소리와 함께 넘실거렸다. 소문대로 안목의 바다며 커피향이며 기대 이상이었다. 해변을 따라 걸었고, 안목을 찾은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되었다.

[달달한 커피향의 그]

그들은 안목과 정 반대인 곳, 서해를 낀 인천에 사는 커피이다.

여자는 해 질 녘 서해를 보며, 커피 한잔을 즐기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커피에 대해서 맛, 향 모두 잘 알지 못하는 자칭 상 남자이다.

그날도 역시 강화도 서해 갯벌이 보이는 카페 창가에 앉아 테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책에서 봤는데, 강릉에 바다와 커피향이 가득한 안목이라는 곳이 있대”

아무 걱정 없는 아이의 미소처럼 한껏 들뜬 얼굴로 웃으며 그에게 이야기했다.

그는 안목이란 곳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 강화의 카페와 무엇이 다를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파도소리, 바다 향, 커피 맛, 사람들, 당신과 나의 감정... 모든 것이 다를거야.”

라고 답했다.

그녀는 그가 커피에 감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어떻게 다르지?” 하고 그녀에게 반문하고 싶었지만,

그가 한말은 “어떻게?” 가 아니었다.

그 또한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사랑할 그녀에 대해서, 그 누구가 아닌 그녀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그가 한마디를 하였다.

“우리 안목에 가자!”

그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다.

직접 보고 느낀다면, 어느 비슷하다는 곳과의 차이를 몸소 느낄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그는 작년 처음 안목을 찾았고, 올해 역시 이곳에 왔다.

작년과 다른 것은,

그때는 아메리카노처럼 날씨는 흐리지만 운치 있는 분위기였고,

사람들 또한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해변을 걸었다.

그러나 지금 안목은 달콤하고 따뜻한 라떼처럼 화창한 날씨에

삼삼오오 즐거움과 미소를 띤 사람으로 가득하였다.

한 가지 더, 둘의 마주 잡은 손에는 똑같은 반지가 끼워져 있다는 것이다.

작년 안목에서 서로 결혼을 약속하였고, 결국 하나가 되어 다시 찾았다.

내년 이맘쯤에도 새로운 그들만의 안목을 느끼고 답아 갈 것이다.

예를 들면,

둘을 쫓 빼닮은 아이와 함께 하는 안목이라든지...

[쓴 커피를 마시던 그녀]

어느 여인이 카페테라스에 앉아
하염없이 바다를 보고 있었다.

그녀가 보는 안목은
잔잔한 파도가 치는 듯해 보였지만,

이따금씩 그녀가 있는
카페까지 삼킬 듯 한 파도가 일었다.

커다란 파도가 칠 때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는데,

어떠한 아픔이
그녀를 삼켰다는 것을
말 안 해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위로할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삶이 녹록하지 않다고 느낄 때마다,
답이 필요할 때마다

안목은 그녀에게
답을 준 것도 아니다.

기다림과 넓은 포용으로
그녀 마음에 안정을 준 것이다.

가슴을 울리던
큰 파도도 잠잠해졌고,

비로소 그녀는
또렷한 초점의 눈으로
바다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카페를 나온 그녀는
드디어 바다의 가까이로
걸음을 옮긴다.

그녀는 안목과 가까워졌다.

[시큼한 커피를 추천해준 그]

지인의 소개로 핸드드립이 유명한
카페의 목직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손님들을 보니 문의 무게처럼
마셔본 커피의 양이
어마어마 할 것 같아 보였다.

주문을 위해 카운터로 향하는데...

가게의 주인이라고 하기엔
그의 커피 무게가 적어보이고,

단순한 바리스타라고 하기엔
여유로운 미소가 어울리지
않는 한 남자가

입 꼬리를 부드럽게 올리고는
카운터에 서 있었다.

단연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외모와 미소였다.

카운터에 다다르고서야 정갈한 듯,
부드러운 듯,

그 남자와 닮은 메뉴판을 보게 되었다.

메뉴판을 보고 나니 궁금증이 풀렸고
커피를 고르는 중이었다.

핸드드립을 먹기 위해 여길 왔으니,
핸드드립 부분을 보는데 종류가 많아서

‘어느 원두가 좋을까...’하고
고민을 하다 그에게 물었다.

“어떤 핸드드립 커피가 좋을까요?”
하고 결국 나의 부족한 커피의 양을
보여준 것이다.

10초간 내 눈과 메뉴판을
번갈아 가며 응시한 후에

“산뜻한 과일의 산도를 더한
케냐 원두 핸드드립 커피를 마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라고 신맛 커피를 추천해 주었다.

그가 추천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신 순간,

창밖 안목의 바다를 보았고
천천히 시선을 옮겨 갔다.

해변의 모래에서 잔잔한 파도로...
구름 한 점 없는 하늘로...

커피를 내려준 그는 나에게
레몬 한 방울의 옐로 라이트를
켜주었다.

소울넘버로 나만의 커피, 나의 성격을 알아보자

By 이준열

〈소울넘버계산법 : 생년월일에 숨은 뜻〉

계산법: 반드시 양력 생일로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생일로 소울넘버를 계산해본다면?

ex) 1989년 3월 4일

$$1+9+8+9+3+4 = 34 \rightarrow 3+4 = 7$$

이렇게 최종적으로 나온 한 자릿수가
나의 소울넘버! 라는 사실.

Soul
Number

0

Soul
Number :

Zero

**에이드 음료 :
Ade Beverage**

어디로 갈지 아무것도 모르는 7살 아이
같이 순수한 당신, 에이드처럼 상큼한
통통 튀는 매력의 소유자네요. 그러나
말 한마디에 다른 것을 고민하는 팔랑귀
당신, 다른 사람이 보기에 대답하지 않을
까요? 조금만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
주세요. 당신의 성격은 호기심이 왕성
하고, 모험심이 강하며,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네요.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자유분방하고
책임감이 부족할 때가 있네요.

Soul
Number :

One

**핫 초코 :
Hot Choco**

말 그대로 미친 존재감! 어느 곳에서
라도 당신의 존재감은 하늘을 찌르는
군요.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다고요?
당신의 말 한마디면 분위기 팡팡!
그러나 당신 너무 불같은 건 아닐까요?
산만한 주위를 조금 더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말솜씨가 좋고, 순간 판단력이
뛰어나 재치가 있는 사람, 주위 사람
들을 기운 솟아나게 하는 재능이 있어
서 모두가 즐거워합니다. 운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결정적인 순간 기세가
좋은 편입니다. 또한 무에서 유를 창조
하는 재간꾼이네요.

Soul
Number :

Two

**카리멜 마끼아또 :
Caramel Macchiatos**

매사에 긍정적인 당신 그런 당신과 함께
하면 주변사람들도 싱글벙글, 당신은
언제나 매력을 소유하고 계시군요.
그러나 더욱 주의 깊게 주변을 둘러보
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수록 멀어
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고 전통을 존중
합니다.

공부에 끊임없는 열정이 있어서 늦은
나이에도 공부를 해서 상상력이 풍부
하고, 축적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
니다. 이득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빠르고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보수적인 성격이 많으며, 타인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Soul
Number :

Three

**스무디 :
Smoothie**

당신은 누구에게나 항상 밝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군요. 항상
웃는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는 당신은
누구에게나 행복바이러스지만 정작
자신을 돌보지 않는군요. 일주일에 하루
쯤은 자신에게 투자해 보세요. 여왕의
숫자라는 말이 어울리는 소울 넘버로
절대적으로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성애가 풍부하고, 오지탈
이 넓으며, 미식가가 많고 우아한 것을
좋아합니다. 상냥하고 남 돌보기를 잘
하며, 남에게 상처 주는 것도 상처를
받는 것도 싫어합니다.

Soul
Number :

Four

**아메리카노 :
Americano**

당신은 많은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주변에 항상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많다고 스스로 느껴지지 않나요?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부럽지 않은 인맥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네요. 차분하고 진중하며,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소중히 여깁니다. 산뜻하고 상쾌한 성격의 사람. 이 사람 앞에서는 지나치게 쾌활하게 굴거나 수다를 떠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해요. 의지가 강하며, 뭐든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이상이 높고,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 빠릅니다. 다만, 고집이 강해서 남 이야기 보다 본인의 경험을 중시하고, 하는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폭력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oul Number :

Five

카푸치노 : Cappuccino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 있는 모습을 보여 주려는 당신, 신의 노력 덕분에 당신은 믿음직스러운 이미지가 강하네요. 마음이 따뜻하지만 둔감한 성격입니다. 응석 반이인 사람. 애교나 응석을 다 받아주면 밀도 끝도 없으니 제멋대로 까볼 때에는 야단쳐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족의 유대를 소중히 하며, 예절과 예의를 중시합니다. 주변을 의식하는 보수적인 면이 많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며, 안정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이 페이스이며,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를 알려 주며, 가르치는 것을 잘하고, 감수성이 풍부해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청춘, 커피를 탐하다.

Soul Number :

Six

카페모카 : Cafe mocha

재미를 추구하고 창조적인 사람입니다. '커피를 즐긴다기 보단 활력제로 마십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연결을 잘 시켜 주고, 화합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겉으로는 활발하지만 속으로 부끄러움을 타며, 예쁜 것을 좋아합니다. 쉽게 질리며, 새로운 것에 흥미가 있고, 이것저것 말을 많이 하고자 합니다. 다만, 핏퐁이 기질이 강하고, 보기보다 신경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멋지고, 예쁜 사람으로 비춰지길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왕자병, 공주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안전하게 있지 못하고, 안정보다는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Soul Number :

Seven

카페라떼 : Cafe Latte

스스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애교 만능! 당신은 모르겠지만 당신의 존재감은 엄청나답니다. 누구에게나 잘 해주는 당신, 주는 만큼 받는 건가요? 당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많아 보이네요, 그러나 조심하세요. 결과속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 쉬워 보이네요.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고, 가만 있질 못하는 성격입니다. 신비로운 영감, 필이 잘 맞습니다. 다만, 자기주장이 강하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겪은 것만 믿습니다. 뒷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앞만 보고 일을 저지르는 성향이 있습니다. 보기보다 섬세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Soul Number :

Eight

더블/트리플 에스프레소 : Double / Triple Espresso

실무적인 일꾼 스타일. 자신에게 원 샷은 이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른 능력차가 있습니다. 머리 좋은 행동파로 천재형이라고 할 수 있네요.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고, 이론으로 하는 것에 강합니다. 신중하고 손해 보는 짓은 안하며, 말이 논리정연 합니다. 자연을 좋아하며, 순수하면서도 조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직선적 말투로 차가워 보여 본의 아니게 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신뢰 받으면 최선을 다하지만 무시를 받으면 극단적으로 돌변 할 수도 있습니다.

Soul Number :

Nine

에스프레소 : Espresso

자신과 관련된 일이라면 하나부터 열까지 완벽을 추구하는 당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멋지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친화력과 적응력이 높으며 커피를 즐길 줄 압니다. 평소에는 얌전해보이지만, 실은 자기 신념이 확고한 사람인데요, 밖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겉모습으로는 상대를 파악하기 어려운 타입이라고 해요. 논리적이며, 머리가 좋고 기억력이 뛰어나며 외로움을 잘 타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 하네요. 인생의 경험에서 쌓은 현명함이 있으며, 돈보다는 명예를 중요시 합니다. 생각이 깊고, 인생에 대해 고뇌가 많아 사람들의 상담을 잘 해줍니다.

위 내용은 재미를 위하여 만들어진 만큼 너무 진지하게 믿지 마시고 즐겁게 테스트 해보는 건 어떨까요?



명주동 여신 영풍

언제부터가 명주동에 여신이 출몰? 한다는 소문이
영상미디어센터까지 들려오게 되고 급기야
그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던 미디어 기자단이 출동하게 되는데...
몇몇 남학생은 눈이 멀었다는 이야기도...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출발!

Q.

<명주사랑채>는 어떤 곳 인가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명주사랑채>는 바리스타가 커피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카페와 달리 자신이
직접 만들어 맛 볼 수 있는 체험 공간이
예요. 그리고 2층은 예술도서관과 커피
도서관을 비치한 북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커피를 마시며 편안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죠.

Q.

<명주사랑채> 주로 오시는 분들과 그 중
인상 깊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A.

초기에는 서울에서 특히 많이 오셨어요.
요즘에는 지역주민들이 초기보다는
늘었지만 지역주민들에 의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어요. 직업들은 다양해요.
주부도 있으시고요 의사 교수, 학생
그리고 여행객들까지.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직업 군에 사람을 만나
보는 것 같아요. 인상 깊은 손님은 최근에
한 여성손님이 오셨어요. 시골에 사셔서
말동무가 없다 보니 입을 달고 살아
말하는 방법을 잊으신 분인데요. 시내에
가끔 업무 때문에 나오셨다가 달리 가실
곳도 없고 커피는 좋아하지만 카페는
가격이 비싸 막상 가는 것을 고민하시는
분이에요. 우연히 이곳을 들린 뒤 저와
이야기하며 입을 조금씩 떼고 계세요.
또 어려워하는 부분은 글을 쓰며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요. 그분 말씀으로는
시내만 오시면 얼른 업무를 마치고
여기로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Q.

<명주사랑채>의 바람이 있으신가요?

A.

활성화입니다. 이곳이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것을 널리 알렸으면 좋겠
어요. 앞서 말한 여성분처럼 말동무가
필요하신 분들이 오시면 제가 말동무가
되고 또 중간에서 손님들끼리 엮어
주기도 하며 방문하시는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공간을 빌리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2층 북카페를 회의
공간으로 이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Q.

마지막으로 자신을 커피원두에
비유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저랑 굉장히 닮았다고 생각한 원두가
있어요. '탄자니아 피베리'인데요.
원두가 작고 개성 있는 맛을 가지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제가 좀 작아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개성이 넘치는 사람이거든요.

Q.

그럼 우리도 배워 볼 수 있을까요?

A.

그럼요!

다음장에 계속.....>

에게 묻는다.

-명주사랑채

명주동 여신에게 배운다.

Coffee Recipe



드립 포트, 드리퍼, 여과지 등의 도구를 사용합니다. 드리퍼 안에 여과지를 접어 넣어 커피 가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붓는 방식이에요. 드리퍼는 메리타, 카리타, 고노, 하리오 등이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맛에 차이가 있어 입맛에 맞게 골라서 추출하시면 됩니다.

우선 콩을 갈아줍니다. 1인분 기준에 14g이고, 150ml를 추출합니다. 아이스 같은 경우는 거의 두 배의 양으로 1인분을 뽑아 얼음에 희석해서 마십니다. 콩에 따라서 80℃~90℃ 물의 온도를 조절하고 추출을 시작 합니다. 처음으로는 뜬을 먼저 들여야 해요. 커피의 양만큼 물을 부어 전체적으로 적셔줍니다.

20~30초정도 뜬을 들인 후 육안으로 봤을 때 구멍이 전체적으로 생기면 드립을 시작합니다.(뜸을 많이 들일수록 빨리 추출할 수 있습니다.) 서서 드립을 하는 것이 좋고 오른손잡이일 경우 왼발을 빼시고 왼손으로 지탱하여 주전자가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기본적인 드립방법은 가운데 기준을 잡으시고 달팽이 모양으로 원을 돌려 점차적으로 커졌다가 작아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커피추출 되는 맛 순서로는 신맛, 단맛, 구수한맛, 쓴맛이 추출되며 2분 안에 추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굵은 물줄기로 빨리 내렸을 경우, 첫맛인 신맛과 쓴맛만 추출되는데, 단맛과 구수한 맛을 뽑아내려면 얇은 물줄기로 원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돌려주고, 드립을 하다가 물이 차오르면 잠시 쉬고 물이 빠진 다음 다시 추출하는 것을 반복하여 양에 맞게 추출하면 됩니다.



터키쉬 커피는 이브릭 혹은 제즈베라라고 불리는 가장 오래된 기구를 사용합니다. 안에 커피를 넣고 불 위에 올려 끓이는 방법으로 이 커피는 가루와 같이 마시며 커피의 입자는 밀가루처럼 곱게 간 것을 사용합니다.

우선 콩의 양은 1인 5~7g 이고 60~80ml의 물을 넣고 설탕을 넣어줍니다. 물을 2/3정도 넘지 않도록 하고, 적당히 저은 다음 중간불 위에 올려 끓을 때 까지 기다립니다. 끓기 시작하면 거품이 올라오는데 넘치기 직전 옆으로 빼서 거품을 가라앉히고 다시 끓이기를 3~4회 정도 반복한 다음 에스프레소 잔에 부어 마십니다.

흔히 이를 보일링 혹은 달임법이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농도가 진하고 걸쭉한 커피가 만들어져요.

다 마시고 남은 커피는 컵을 뒤집어 두어 커피의 찌꺼기가 컵과 컵 받침에 남은 무늬를 통해 커피 점을 치는 전통이 있다고 하네요.



모카포트

상·하 포트가 구성되어 있으며 중간에 커피 가루를 채우는 용기인 바스켓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단 포트에 스팀 바로 아래선 까지 물을 넣고 중간에 있는 바스켓에 밀가루처럼 곱게 간 커피를 넣어 탬핑한 다음 상 포트를 장착해 불 위에 올려놓고 끓입니다.

이때 하단 포트에 있는 물이 끓기 시작하면 그 수증기가 바스켓을 통과하여 상단 포트에 추출되는데 크레마는 없지만 맛과 향은 에스프레소와 유사합니다.

우유에 섞어서 라떼를 만드시거나 에스프레소 잔에 설탕과 함께 마시면 더욱 맛있어요.



프레스 :

프레스는 실린더(50ml), 피스톤(O링), 손잡이, 베이스, 포트필터(49.5mm)로 구성되어 되어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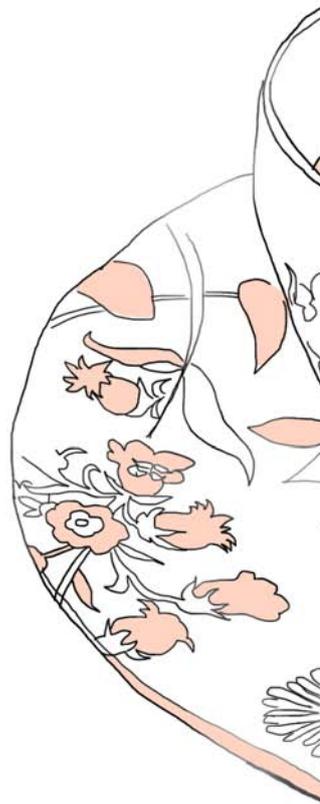
프레스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뜨거운 물만 있으면 에스프레소를 맛 볼 수 있는 기구로 사람의 힘을 이용해 커피를 추출함으로써 그 힘과 각각의 취향에 따라 다른 커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뜨거운 물로 프레스를 예열시 켜줍니다. 에스프레소용으로 커피를 곱게 갈아서 포트필터에 커피(1인/15g)를 넣고 탬핑한 다음, 장착하는데요, 이때, 일반 머신과는 달리 반대인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장착합니다. 그리고 실린더에 물(90°) 60ml를 부어 30ml를 추출합니다.

프레스의 양 레버를 위로 올리게 되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래로 내려가는 동시에 피스톤에 부은 물이 하단의 피스톤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뜸을 5초~7초 정도 기다리고 다시 양 레버를 내리면 자동적으로 압력이 가해지며 커피를 추출합니다.



청춘, 커피를 담았다.



커피 잔을 그리는 것은
나의 오래된 취미 중 하나이다.
그리는 이유는 수집하기 힘든
고가의 커피 잔을 나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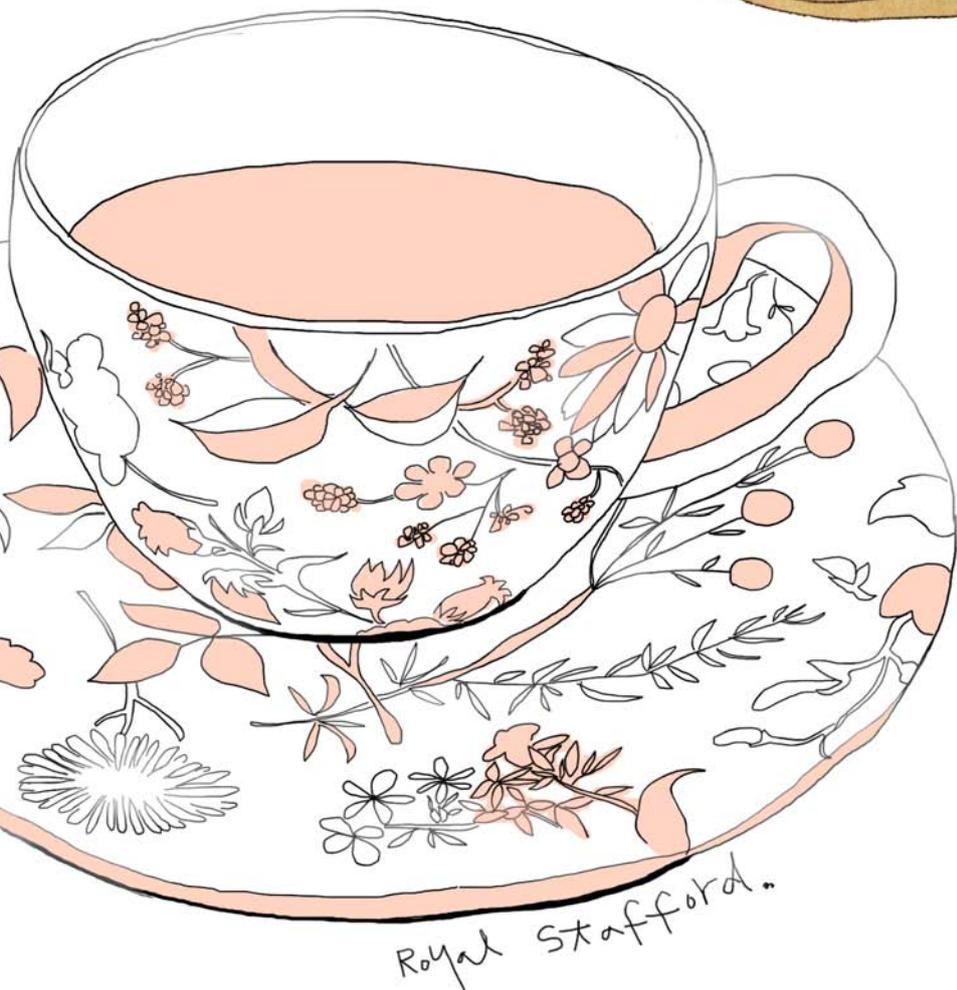
미술을 전공한 나에게 그림을 그리는
것은 일상이고 커피를 즐겨 마시는
것 역시 일상의 큰 부분이다. 그렇다고
커피에 대한 조예가 깊은 것은 아니다.
과테말라, 쉐바, 피베리 등 다양한
커피 콩들이 있지만 난 이것들의
향도 맛도 구별하지 못한다.

아무래도 나에게
더 영향력을 주는 것은
카페의 인테리어, 분위기,
찾잔, 소품 정도이다.

강릉에 거주한지
근 5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정말 많은 카페를 다녔고,
나의 대학 생활 4년을
카페에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카페를
나의 관점에서 기록하기 위해
카페 풍경이나 커피 잔, 커피 소품을
스케치북에 담았다.

클래식한 홍차 잔, 투명한 유리컵,
각양각색의 텀블러를 그리는 일은
잠시나마 걱정고민거리를 잊게 해 준다.





“오아시스 같은 공간”

Q. ‘크랙’이란 뜻은 어떤 의미인가요?

A. 커피용어에 크랙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크랙은 갈라지다, 마약이라는 용어인데, 복합적으로 사용하면 ‘마약처럼 홀릴 수 있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Q. 일을 하면서 가장 행복 할 때는?

A. 월별로 커피 블렌딩*이 바뀌어요. 샘플로 가져왔을 때 생각 외로 좋을 때가 있고, 손님들이 접했을 때 반응이 좋으면 거기서 행복함을 느끼죠.

*커피 블렌딩 (coffee blending)
조화성이 좋은 커피들끼리
혼합하는 것.

Q. 젊은 나이에 창업을 하다 보니 불편한 점은?

A. 창업을 하기에는 나이가 어리다보니 색안경을 끼는 분들이 많아요. 어리니까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웃음) 보여지는 이미지가 플러스가 되기보다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Q. 젊은 나이에 사업을 하시게 된 계기는?

A. 원래 운동을 했는데 부상을 당한 후 20살 무렵 운동을 그만뒀어요. 그래서 삶의 계획 수정이 필요했어요. 의류 쪽에 입사하여 몇 년 일을 하다가 다른 학교로 진학을 했어요. 전공이 관광경영학이어서 자연스럽게 커피과목을 접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커피에 대해 관심이 생겼어요. 졸업 후 본격적으로 커피 공부를 했어요. ‘크랙’을 열기까지 내가 혹시 더 좋아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요.

Q. 창업을 하면서 언제 가장 힘들었는지?

A.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들자면 강릉은 커피숍이 워낙 많으니까 저희 가게만의 독특함이 필요했죠. 그런 방향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기위해 많은 발품을 팔았어요. 1년은 방향성에 대해 준비를 했고, 나머지 1년은 그 외적인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준비를 했어요.



Crack

Q. 본인의 일에 만족도를 퍼센트로 나타낸다면?

A. 아마도 80%쯤이요.

Q. 나머지 20%는요?

A. 크랙에서 도전해 보고 싶은 것이 아직 많아요. 100% 만족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Q. '크랙' 안에 기억에 남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A. 저희 가게에 공식커피플 1호가 있어요. 사귀기 직전의 커플이 오셨죠. 요즘말로 하면 '썸'. 남자 분께서는 오늘 고백을 하겠다. 라는 뉘앙스가 풍기셨죠. 편지를 써서 줘야하나 친구들과 고민을 하기에 제가 도와드렸어요. 남자 분 손 편지를 커피 잔 밑에 두고 하트 라떼 아트를 해서 가져다 드렸어요. 음악도 달달한 노래로 깔았죠. 나갈 땐 손잡고 나가셨어요.

Q. 마지막으로 '크랙'이 다른 가게와 차별화된 점은?

A. 커피는 저희가 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죠. 저희 가게에서는 매달 프리마켓을 열어요. 그림, 악세사리, 옷, 향초, 그 외의 핸드메이드 등 다양한 물건들을 판매해요. 또, '옥상달빛' 이라는 인디밴드가 공연을 했어요. 즉, 문화공간으로서의 '크랙'이죠.

점차 졸업이 다가오면서 사막을 걷는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 사막은 마음속에서 점차 넓어지고 있었다. 사회로 나아가는 문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나는 정작 큰 아픔과 진로의 수정 없이 이 자리까지 왔다. 젊은 창업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

이제 당당히 문을 열 수 있겠다. 아직 어딘지는 불확실하지만 저 너머엔 오아시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사막을 건너가본 경험이 있는 선배들이 지도를 그려주기에...

By 조은주

미국인 '잭 커리'가
운영하는

교동택지

SO ZAC'S

잭 커리에게 묻다.

다문화가족으로 EBS에 소개 된 잭 커리는 아름다운 풍광에 매료되어 강릉에 정착하여 자신이 가장 즐기던 커피와 메뉴로 젊은이들의 눈과 입 그리고 영어실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인터뷰를 진행한 Deeyingsukanya 역시 강릉 원주대학교 한국어학과와 미디어기자단 활동을 병행하며 열심히 공부 중이며 가끔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잭을 찾는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말해 주듯 앞으로 늘어갈 외국인 창업자의 길라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한다.

- Q. How long you have been in Korea? And when you met Mrs.Sojin?

A. I have been in Korea 5 years and I met her in 2011.

- Q. Have you continue staying here?

A. No, first in Donghae I have traveled at 울릉도island.

- Q. Why you decided to stay in Gangneung?

A. I really like Gangneung because the mountain and the sea is very closes.

- Q. I heard that you are also teacher so how did you become a teacher?

A. Yes, I'm a teacher at elementary school. Actually my mom is a teacher as well and I enjoy teaching.

- Q. How about your hobby?

A. I like running in the mountain.

- Q. How you met your wife?

A. We met in a Donghae trip.

- Q. Why you did café here?

A. I want to have coffee shop and Sojin also want too, so we did together and here is a good road and good city for café especially in 태백지 it's a coffee place.

- Q. What is the hardest part of your business?

A. There are busy times and slow times but I think sometime it fun and we have to organize everything because we are a worker and owner in the same time. It's small business and first year is a little difficult opening because it's a beginning time I think most of businesses must take about 5 years for waiting the business grow.

- Q. Before you open this café you have to learn how to make a coffee right?

A. Right, Sojin is my teacher and I learn how to make that for one year.

- Q. What is your inspiration for decorating your café?

A. I really like wood very natural style. It is sensible and comfortable.



Flower & Coffee

MOCHA TREE

꽃향기 가득한 카페, 모카트리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은은하게 풍겨오는
꽃향기와 커피향기,
이곳은 모카트리입니다.

택지에 이색 카페 중 모카트리의 특징은
플로리스트 사장님께서 꽃과 커피를
같이 판매하고 있다는 것인데,
가게의 인테리어부터 가구배치까지
편안함을 선사해주는 카페입니다.

물론 아름다운 꽃들 덕분이겠죠!

친구들 혹은 연인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꽃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Q: 어떻게 꽃과 함께 카페를 운영하게 됐나요?

A: 저는 현직 플로리스트예요. 그리고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고향에 내려와 보니 커피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자연스럽게 함께 하게 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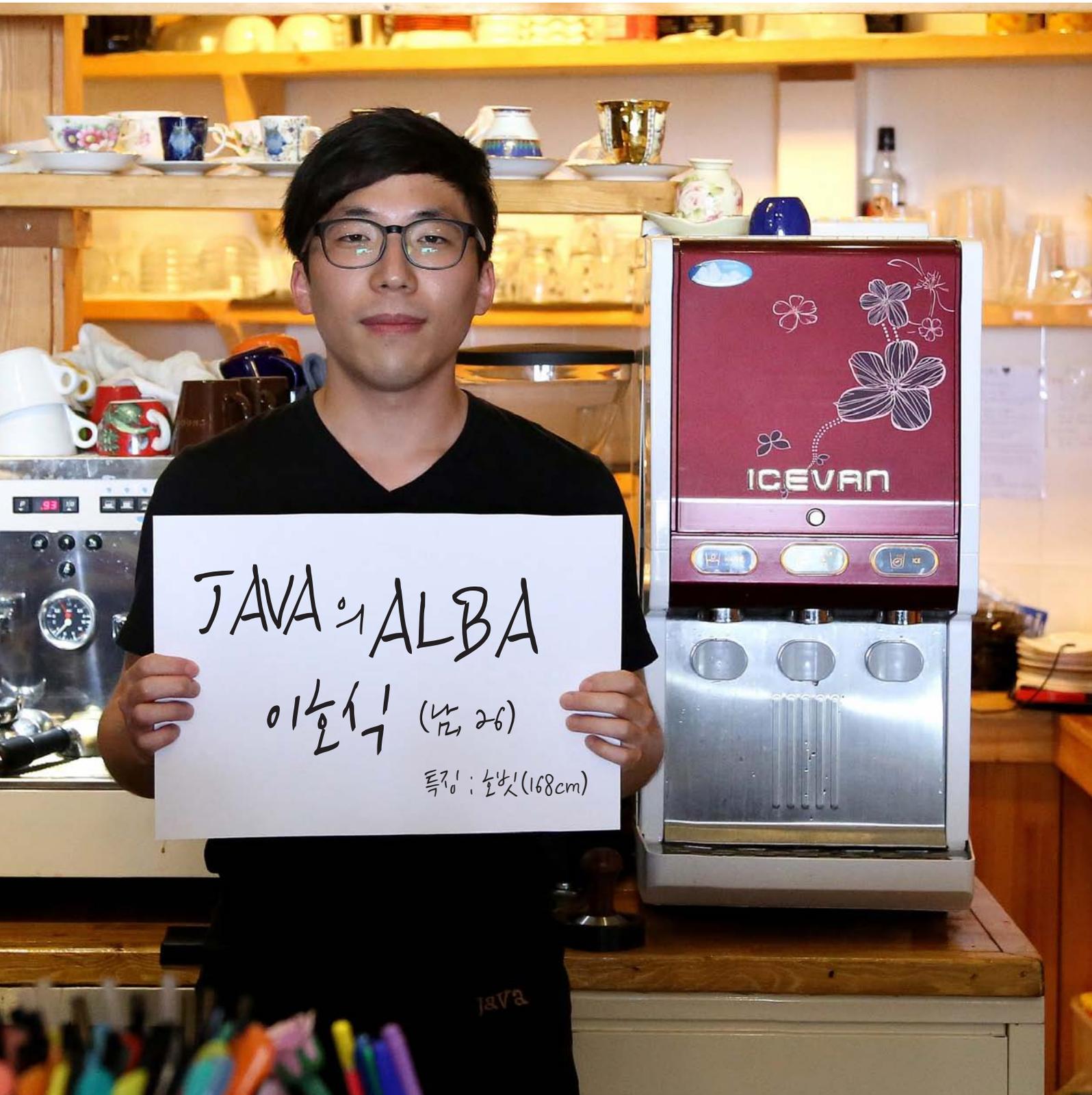
Q: 카페의 컨셉이 사람들에게겐 어떤 느낌을 주는지 알고 싶어요.

A: 보통, 여기에 꽃도 같이 하는구나 라는 반응이 많고 커피 마시러 왔다가 꽃꽂이 강좌를 등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A: 커피도 좋지만 "꽃"도 사랑해 줬으면 해요. 집에 생화 하나가 배치되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참 많이 다르거든요. 사람들이 꽃으로 통해 그 가치를 알았으면 해요.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멀리 찾아가고 그 음식을 먹는 시간동안 즐거움을 느끼는 것처럼 비싼 꽃이 아니더라도 한 송이의 꽃을 보면서 그 꽃이 시들기 전까지 시간을 통해 행복했으면 해요.

‘커피와 카페가 활성화된 도시에서
가장 많은 알바의 일상과 애환 엿보기’



JAVA의 ALBA
이순식 (남 26)
특징: 순바닛(168cm)

어느 20대 카페 아르바이트생 이야기.

소개 좀 부탁한다.

나는 강릉 해변 수많은 카페 중 하나에서 반 년간 일하고 있는 휴학생 26살 호빗이다. (다 큰 어른 키가 168이다.)

굳이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 하게 된 계기가 있는가?

집안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 방학 때마다 마트에서 무거운 것도 들어보고 주유소에서 기름도 넣어보고 옷가게에서 옷도 팔아 보고 식당에서 서빙도 해봤다. 그동안 해본 일들은 힘도 많이 들고 재미도 없다. 딱 '카페'하면 검은 앞치마 깔끔하게 두른 잘생긴 알바생이 친절한 웃음으로 서빙하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는가? 그동안 해온 아르바이트들은 옷을 일이 별로 없었다. 그게 편해보여서 시작하게 되었다.

본인이 잘생겼다 생각하나?

인터뷰하기 싫은가?

미안하다. 다른 아르바이트와의 차이점은?

우선 추운 날 따뜻하고 더운 날 시원하다. 내가 해본 다른 일보다 무거운 것들 들 일 없이 육체적으로 조금 덜 힘들다. 그리고 핸드드립 커피 만드는 걸 배울 수 있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은 둘째치고 가장 큰 장점은 예쁜 여자를 많이 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그래서 뭐 없다. 남자 알바생이 여자 손님한테 적극적인 모습? 썩 보기 좋아 보이진 않는다. 아, 일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곧 그만두는 20살짜리 여자 알바생이랑 인수인계 하면서 가까워진 적은 있었다. 근데 걔 남자친구한테 "형! 그러시면 안되죠." 전화 받고 진땀 뺐던 적이 있다.

장점만 있나?

아니다. 한가할 땐 이만한 아르바이트가 없는데 바쁠 땐 너무너무 힘들다. 처음 일 시작 할 때 경포 근방 모 카페에서 두 달 정도 일했다. 눈이 120센티미터 왔던 날 손님이 정말 하나도 없었다. 한 2~3일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게 너무 좋았다. 눈이 어느 정도 녹고 차가 슬슬 다니기 시작하던 어느 날, 헬게이트가 열렸다.

별로 안 바쁘다는 이유로 3층짜리 카페에 나는 혼자였다. 레시피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주문받고 만들면서

계산까지 해야 한다. 한참 만들고 있는데 새로운 손님이 오셔서 주문하고 이미 주문하신 손님이 재촉까지 하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다.

내가 무뚝뚝한 편인데 서비스업 특성상 너무 까다로우신 손님이나 급하게 재촉 하시는 손님들은 조금 버겁기도 하다. 확실히 세상에 돈 벌기 쉬운 일은 없는 것 같다. 이것저것 해보면서 배우는 게 많다.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는가?

최근 일이다. 커피 리필을 해드려야 하는데 다른 주문이 밀려서 조금 늦었다. 2층에서 1층으로 전화해서 재촉하셨던 손님이 기억이 난다. 작은 카페는 바쁠 땐 주문이 밀릴 수밖에 없다.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 또 11시까지 영업을 하는데 가끔 술 취하신 분들이 인사불성이 되어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여자 손님들 대화가 재미있다. 휘핑크림 잔뜩 얹은 라떼, 허니브레드, 팔빙수 등 살찌는 것들 바닥까지 박박 긁어가며 먹으면서 살짚까봐 걱정 하는 모습. 매일 보는 모습이지만 볼 때 마다 너무 웃긴다.

아, 그리고 가끔 오시는 손님 중에 항상 카페모카만 드시는 손님이 계시는데 너무 예쁘다. 팬이다.

알바생은 카페에서 어떤 메뉴를 가장 추천하는가?

아메리카노.

이유는?

가장 잘 팔리는 메뉴. 어느 카페를 가든 그곳의 간판메뉴이다, 그리고 가장 맛이 정직한 메뉴라고 생각한다. 카페마다 다르겠지만 커피 이외의 음료들은 첨가물이 들어가는 메뉴들이 많다. 어지간하면 아메리카노, 커피 못 마시면 생과일주스 마셔라.

그리고 알바생들은 아메리카노를 사랑한다. 빨리 만들면 두잔 만드는데 30초 정도 걸린다. (웃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카페에서는 역시 아메리카노!

정직한 맛의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정직한 맘의 댓가를 아는 친구 호식의 멋진 청춘 도전을 응원한다!



커피의 사회적 참여 가능성

By 미디어기자단

“아직도 어려운 메뉴들이 있지만
반짝이는 그 눈에 담지 못할 메뉴는
없을 듯 보였다.”

장애인들이 집, 시설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두와 교류 할 수 있고 더불어 사회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한 <카페 솔향>

카페 솔향은 강릉시청 로비에 위치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만들어진 곳이다. 바리스타 과정을 밟은 오성학교(강릉에 위치한) 출신의 교육생들과 사랑의 일터의 교육생들 그리고 안전과 지원을 담당하는 매니저까지 총 6명의 직원이 최상의 시설에서 최고의 커피를 제공한다.

그들이 홀로 설 수 있도록 진행과 교육을 담당한 이준화 선생님은 그 과정을 “아이들의 바람과 부모의 심정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라는 소감으로 힘들었을 과정에 진한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바리스타 코스가 쉽지 않은 과정임을 아는 사람들은 새로운 도전을 마치고 비상을 하는 친구들에게 박수와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교육을 끝내고 자신의 본분으로 돌아간 선생님도 감미로운 스페셜티로 수많은 이야기를 대신했다.

이어서 찾아간 카페 솔향은 여름휴가 시즌으로 휴가를 즐기는 바리스타를 제외하고 사랑의 일터 소속 남정훈씨가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다.

커피를 배우는 일이 쉽지 않은 않았다는 정훈 씨는 지금 이 일이 너무나 좋다고 했다. 아직도 어려운 메뉴들이 있지만 반짝이는 그 눈에 담지 못할 메뉴는 없을 듯 보였다.

가장 자신 있는 메뉴를 문자 서슴없이 블루베리 스무디를 추천하였고 그 맛은 정말 일품이었으며 그 뒤 손님의 아메리카노를 내리는 뒷모습은 어느 커피 장인들과 다를 바 없는 진지함이 느껴졌다. 바쁜 시간을 할애해준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서는 내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커피의 역할이 더욱 확장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새삼 떠올리며 뭔가 기분 좋은 발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행복한 하루를 은근히 기대한다면 이 세상 그 어디에서 보다도 진지하게 만들어지는 카페 솔향의 아메리카노 한 잔은 어떨까?





café **솔향**

아이스크림소	차&주스	스탠디&에이드
아메리카노 1,500	수확차 2,500	요거틴스무디 5,000
디저트아메리카노 2,500	홍차차 2,500	데저틴플기 플루터라 2,500
디저트콜라 2,500	다양차 2,500	에이드 2,500
카페라떼 2,500	약산차 2,500	(원산지)
카페치초 2,500	[특별음료, 플로터라, 라벤다]	복숭아아이스티 2,500
카페우유 3,000	과일주스 5,000	맛조羹 2,500
만드드림 4,000	(원산지, 플로터라)	고구마라떼 2,500
아이스500원주거	아이스500원주거	아이스500원주거

부자는 2,500	[특별음료, 플로터라, 라벤다]	복숭아아이스티 2,500
우유가 3,000	과일주스 5,000	맛조羹 2,500
도드림 4,000	(원산지, 플로터라)	고구마라떼 2,500
아이스500원주거	아이스500원주거	아이스500원주거



꿈엔인 입자리
이 만든 카페입니다. ☺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대학생미디어기자단

Ver. 2014

미디어 기자단

김동희	ehdgm1629@nate.com
김시은	ziizn123@gmail.com
김지수	qusxowltn@naver.com
김현재	chea1122@naver.com
박주영	wndud711@naver.com
방준극	wnsmr95@hanmail.net
신경란	rudfks2358@hanmail.net
안유라	amaraada03@gmail.com
이예지	ly921006@naver.com
이준열	akfrdms110@naver.com
정민진	wnls66@naver.com
조은주	pk8518@naver.com
진명근	jinmg91@gmail.com
최종혁	ahdiahdi333@naver.com
최진영	machooobok@gmail.com
홍민기	ghdalri@naver.com
황철준	gggjky1221@naver.com
DEEYINGSUKANYA	onraya-nn@yahoo.com
KANA NAGASHIMA	2525isabel@gmail.com

교육팀

심원	double_stop@naver.com
김진주	lilac_317@naver.com

박주영



진명근





최진영

심원

김동희

왕철준

조은주

김나 나가시마

담수 칸야

신경란

안유라

이지

김지수

이준열

방준극

최종혁

흘러가는 시간이 어딘가에 가서 모인다면
그것은 분명 '에스프레소'다.

내 인생에 가장 아픈 시간이 어딘가에 모여 있다면
그것은 분명 '에스프레소'다.

나의 삶에서 눈물이 날 정도의 기쁨이 모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분명 '에스프레소'다.

그런 그것과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분명 '강릉'이다.





강릉커피제
Gangneung
Coffee
Festival
축제



www.coffeefestival.net

2014.10.2 목 ▶ 10.5 일

강릉 실내종합체육관 컨벤션홀 및 강릉일원

주최



주관





누구나 한 번은 커피를 찾는다



청춘,
커피를
담하다.